



[산업] SK하이닉스 최고속 D램 양산 영화 124편 전송 1초 06



Economy

코스피	2135.37 (+28.67)	코스닥	724.55 (+14.97)
금리 (연평균)	0.830 (-0.017)	환율 (원/달러)	1200.00 (-3.40) (2일)

## 반도체 강국 코리아, 산화하프늄 新기능 발굴

# ‘메모리용량 1000배’ 혁신기술 탄생

UNST 이준희 교수팀 연구 순수 이론 시연에 게재

축구장 면적의 몇 백 배 규모인 데이터센터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여 데이터센터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메모리 소재 용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이준희 교수팀은 메모리 소자의 용량을 100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산화하프늄(HfO2)의 새 기능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0nm 수준에 멈춰선 메모리 소자의 단위셀

단일 원자 수준 메모리 응용 예시



크기 한계를 단숨에 0.5nm까지 축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모리 소재 원리를 발견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원자에 직접 정보를 저장해 기존 메모리 소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작은 크기의 반도체뿐 아니라 초집적·초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구현에까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UNST는 이번 성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국내 이준희 교수팀 단독으로 3일 4시(한국시간) 발표됐다고 밝혔다. 순수 이론 논문이 사이언스에 게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산화하프늄은 트랜지스터에 전압이 걸리는 게이트 단자에 사용되는 고유전율(high-k)

반도체로 널리 알려진 산화물이다. 최근 비휘발성 메모리 성질인 강유전성까지 발견돼 기존에 실리콘 반도체 공정에 친화적인 강점까지 더해져, 차세대 메모리 소자인 강유전 메모리(FeRAM)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들 간 강한 탄성 상호작용으로 인해 원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준희 교수 연구팀은 산화하프늄이라는 반도체에 특정 전압을 가하면 원자를 스프링처럼 강하게 묶던 상호작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새로운 물리현상을 발견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부동산 시장 앞날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보고를 간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정부의 입장 정리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 <관련기사 3면> /연철뉴스

# SK바이오팜, 시총 10조 ‘바이오 공룡’ 되다

상장 첫날 시초가 공모가 두배 증가 시초가보다 30% 더 올라 시총 9조9458억, 순위 26위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로 올랐고, 증가는 시초가보다 30% 올랐다. 소위 ‘파상’ (공모가 2배가 격으로 시초가 형성한 후 상한가)에 성공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증권업계 전망치를 넘어선 수준이어서 향후 주가 흐름이 주목된다.

2일 주식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은 공모가(4만9000원)보다 160% 상승한 12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초가 9만

8000원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채 장을 끝냈다. 상한가 수준에서도 매수 물량이 대거 쌓여 있어 주가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로써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은 9조9458억원이 됐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순위는 26위(우선주 제외)를 기록했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음으로 큰 ‘바이오 공룡’이 됐다.

이날 SK바이오팜의 ‘파상’은 예견된 결과다. 일반 청약 과정에서 기업공개(IPO) 역사상 최대 증거금(31조원)이 몰렸고, 경쟁률은 323대 1을 기록했다. 1억을 넣어도 12주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

거웠다.

앞서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16년), 셀트리온헬스케어(2017년)의 주가 상승을 경험한 학습효과도 SK바이오팜의 투자 열기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약 477% 이상 오른 상태다.

SK그룹이 거는 기대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거래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 2월 20일 상장한 서남 이후 약 1달 반 만에 처음으로 신규 상장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최정윤씨가 참여해 이복을 끝냈다.

청약에 성공해 주식을 받은

투자자들도 첫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날 거래량은 63만7951주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물량(7831만3250주)의 0.8%에 불과하다. 당초 유통가능한 물량(1566만2648주)을 고려해도 현저히 적은 거래량이다.

이날 상한가에도 물량이 대거 쌓여있다는 점에서 상장 다음날인 3일에도 상승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만약 3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 시총은 12조7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총(16조원)을 넘볼 수도 있다. <3면에 계속>

/손습지 기자 sonumji301@

### 社告



## 메트로미디어 ‘2020 100세 플러스 포럼’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15일(수) ‘2020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고령화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경제전망’ 기초강연과 ‘재테크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부동산 투자전략 등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해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부동산 투자전략을 제시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리츠운용 전문가인 남궁 훈 신한리츠운용 대표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 행사명 : 2020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 제 : 고령화시대 리스크관리와 재테크
- 일 시 : 7월 15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분증 미지참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호조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주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6월 말 기준 매출액 50조 6057억원에 영업이익의 6조212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4%, 5.8%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제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잇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기대 이상으로 호조를 보이는 데다, 스마트폰 등 세트 시장도 당초 우려했던 만큼 추락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2분기 삼성전자 전자 영업 이익을 6조6000억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전망했다. 전년 대비 20% 가까이 높은 실적을 예상한 것.

KTB투자증권도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6조7000억원에서 7조

400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매출액은 5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가량 감소한 수준이지만, 더 실속있는 사업을 해냈다는 의미다.

전망치 상향의 가장 큰 이유는 ‘확고한 기술 리더십’이 꼽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해 전 상품군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했다는 예기다.

하이투자증권도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5조9000억원에서 6조 8000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한국투자증권도 영업이익을 6조7000억원으로 예상하며 당초 기대를 훌쩍 넘는 전망치를 내놨다.

실제 영업이익은 이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같은 전망치가 스마트폰 등 세트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도 추산된 만큼, 실적 방어 능력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재용 기자 juk@



# 구현모 “5G, 폭발적 잠재력… B2B시장의 블루오션”

〈KT 대표〉

## ‘GTI 서밋 2020’서 기조연설

“KT, 5G로 타산업 혁신 이끌 것  
AI·빅데이터와 결합 시너지 내야”

“지금까지는 모바일 통신이 B2C의 중심이었다면, 5G의 중심은 B2B로 전환될 것이다. 5G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함께 결합해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다. KT가 5G로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1일 열린 ‘GTI 서밋 2020’에서 ‘5G 현주소와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2일 밝혔다. GTI 서밋은 GTI 주최의 행사로 매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



구현모 KT 대표. /KT

A) 주관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의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돼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MWC 바르셀로나가 전격 취소된 것에 이어 MWC 상하이도 개최가 무산되면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형태의 이벤트 ‘GSMA 쓰라이브’로 대체 진행됐다. GTI 서밋 2020도 GSMA 쓰라이브 행사의 일환으로 ‘모두를 위한 5G’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구 대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GTI 서밋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에서 5G 상용화 1년이 지난 현재 B2C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결국은 B2B 시장에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구 대표는 “5G의 B2B 시장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차별화된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라며 “기업 고객은 통신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설비 투자와 인프라 고도화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5G 기반 디지털 혁신(DX)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KT가 발굴한 다양한 5G B2B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적용 사례로는 영화 촬영 현장, 의료 분야, 실감 미디어 기술 등이 꼽혔다.

구 대표는 이 같은 5G B2B 확산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짚었다. 5G 모듈이 탑재된 B2B 단말 확대, 각 산업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기존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가치 창출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유지 인프라로서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디어·데이터 소비가 급증하는 등 통신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어 통신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5G는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플랫폼이라는 시각으로 여러 사업자 및 소비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통신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세계 최초 5G를 주도해온 차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적용사례를 발굴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KT가 5G B2B 영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한진칼 BW 청약에 3자연합 참여… 지분경쟁 격화

〈신주인수권부사채〉

3000억 발행에 증거금 7.3조 몰려  
경쟁률 24.45대 1… 만기이율 3.75%  
“3자연합, 지분 늘릴 수 있는 기회”

한진칼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에 7조3000억원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SK바이오팜에 이어 시중에 풀린 대기자금이 몰린 결과다.

BW 발행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3자연합(반도건설·KCGI·조현아)도 이번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높은 경쟁률로 인해 배정 물량이 적었을 수 있지만 대규모로 증거금 청약을 나섰다면 지분 경쟁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3000억원 규모의 한진칼 BW 청약 최종 경쟁률은 24.45대 1에 달했다. 증거금 규모는 총 7조3341억원이다.

이번 BW는 표면이자율이 연 2%, 만기이자율은 연 3.75%다. 채권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일이며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상장 예정일은 16일이다. 만기



한진그룹. /김수지 기자

일은 3년 뒤인 2023년 7월3일이다.

한진칼과 같은 대기업이 BW 발행에 나서지는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 한진칼 같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매자닌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매진 한진칼 신용등급은 ‘BBB’에 해당한다. 한신평은 ‘부정적’, 한기평은 ‘하향검토’로 전망을 밝혀놓고 있어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BW는 전환사채(CB)와 함께 매자닌으로 묶인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

는 장점을 지닌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연 3.75%에 달하는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이번 BW 발행에 증거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3자연합도 BW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W 발행으로 늘어나는 지분은 최대 5.3%에 달해 매입 여부에 따라 지분율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아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BW는 분리형으로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매각할 수 있다. 신주행사가액은 8만2500원으로 전일 종가(8만6500원) 대비 4.6% 낮아 차익 실현

이 가능하다. 주가가 하락하면 행사가를 70% 낮추는 리픽싱 조항도 있어 투자 위험이 적다. 신주인수권 행사는 내달 20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한진칼의 BW 발행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진칼은 지난달 1일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방식으로 BW 30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 5월 14일 대한항공 지분 가치 유지와 대한항공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3자연합 측은 BW 발행에 대해 “발행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와 BW를 사게 되면 3자 연합 측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3자 연합이 대거 사들일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지분을 늘릴 기회가 된다”며 “현 경영진이 유리한 의사 결정을 내렸는지 추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소비자물가 상승률 0% 두달째 초저물가 지속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 동향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탈출했지만 두 달 연속 초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와 한우 등 먹거리 물가는 급등했다.

2일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작년 동월과 같았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지면 -0.01% 하락이지만, 국제노동기구(ILO) 매뉴얼 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공식 물가이므로 제로 물가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올라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월에 다시 0%대(0.1%)로 떨어진 뒤 5월에 -0.3%로 더 내렸다. 작년 9월(-0.4%)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품목별 물가는 요동을 쳤다. 농·축수산물(4.6%)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 포인트 끌어올렸으나, 석유류(-15.4%)와 공공서비스(-0.2%)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각각 0.68%포인트, 0.28% 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방역 전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축산물 가격이 10.5% 상승한 영향이 컸다. 반면,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 가격은 -1.4%로 떨어졌다. 서비스 중 개인서비스는 10.0%, 집세는 0.2% 각각 올랐다.

/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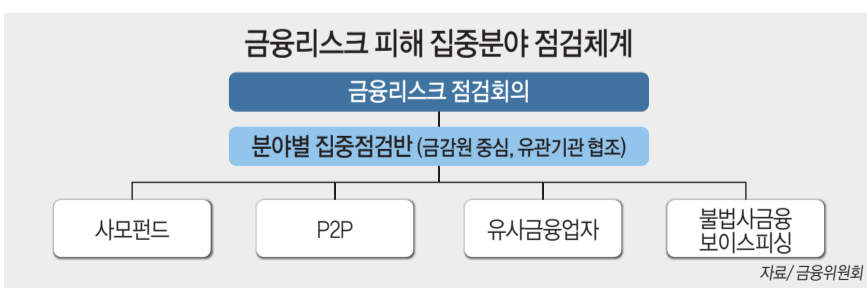
## “저금리에 금융사고 증가… 사모펀드 1만개 전수조사”

금융위·금감원, 전면점검 회의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곳을 전수 조사한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는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감독·검사방식을 뛰어넘는 점검체계를 마련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점검 대상은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

용 및 보이스피싱 등 네 가지 분야다. 금융당국은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우선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는 판매사를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집중점검반을 통한 ‘현장검사’

2가지로 진행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가 주도해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판매사는 지난 5월 기준 1만304개의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운용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은 오는 9월까지 약 2개월 간이며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 중에도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차이 발생, 기타 법령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등의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 현장검사와 연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내성만 키우고 또 압박?... 김포·파주 규제 카드 '만지작'

김포·파주 '풍선효과'로 집값 들쭉  
평소 시세보다 호가 4000만원 올라  
정부 집값 규제 일시적 진정세 그쳐  
"김포·파주 지정면 타지역 풍선효과"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 파주 지역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선정을 서두르며 압박수위를 높일 태세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3%, 전세가격은 0.12% 각각 전주 대비 상승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전주 대비 0.9%나 올랐다.

김포 한강센트럴하이1차(전용면적 84.96㎡)는 지난 1일 4억3000만원, 김포 풍무센트럴푸르지오(전용면적 84.97㎡)는 6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평소 시세보다 호가가 3000만~4000만원 올랐다.

### ◆김포·파주 아파트값 4000만원 ↑

6·17대책 발표는 호가 상승과 함께 실거래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 김포 한강 아이파크(전용면적 84.95㎡)의 경우 지난달 22일 4억2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5월에 3억7800만원에 실거래됐다. 5월 3억1000만원에 거래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손진영 기자son@

된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전용면적 59.39㎡)는 지난달 29일 3억5000만원에 팔렸다.

김포와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파주는 힐스테이트운정(전용면적 60.02㎡)이 지난 1일 5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6·17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 4억6000만원에 팔렸다. 같은 날 4억원에 매물이 나온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2차(전용면적 60.17㎡)는 지난달 3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호가만 1000만~4000만원 오른 셈이다. 현재 김포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는 1075만원, 파주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는 861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 ◆집값 '풍선효과' 반복

그동안 정부는 21번째에 달하는 규제책을 발표해 왔지만 일시적인 진정세만 보였을 뿐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가격이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김포와 파주 지역의 상승세에 정부는 추가 규제를 예고했지만 이 지역들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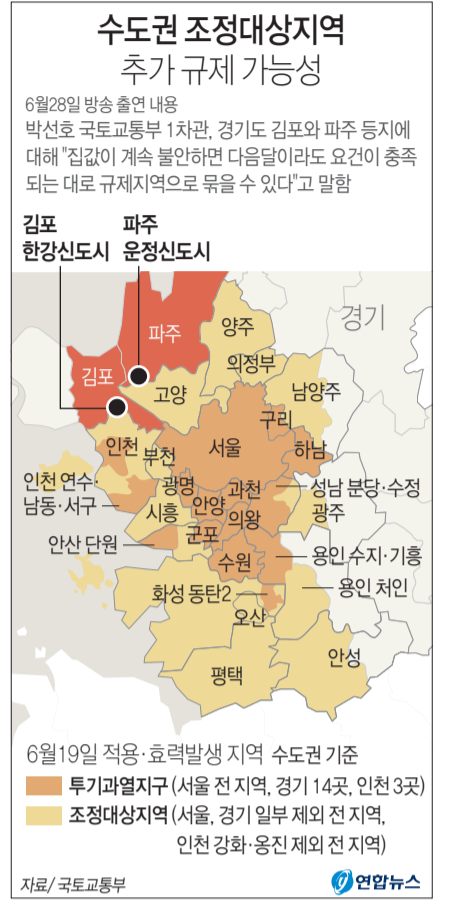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의 경우 6월 들어 둘째 주~세째 주(0.04%, 0.02%)에 이어 넷째주에 무려

1.88%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성장하고 있어 사실상 김포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파주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 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주택매매가격 하락세였던 파주는 6·17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지난주에만 0.27% 올라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6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통계청의 물가지수 발표가 며칠 초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주의 규제지역 지정은 이달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와 파주지역의 집값 상승은 비규제 지역 선정 후 풍선효과와 다른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가격 상승이 덜했던 것에 대한 저평가 심리가 반영 된 것"이라며 "규제지역 선정 시 상승세를 나타내던 가격이 다시 숨고르기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종부세 칼 빼든 文 대통령 "개정안 최우선으로 처리"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시  
노영민 "靑비서관 다주택 처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한 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대한체육회가 1일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 조사도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일부 참모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면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 당사자를 한 명씩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처분을 권고한 노 실장은 중복 청약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실장이 '국민 눈높이',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면담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부동산 매각에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 권고에도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재권고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1면 'SK바이오팜 시총 10조'서 계속

### 증권사 목표가 가법계 훌쩍 코스피 200 조기편입 무난

다만 SK바이오팜의 '고평가' 논란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하루 만에 주가가 160% 오르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회사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재 SK바이오팜은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승인받은 신약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제품명 엑스코프리)는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5조원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수노시)의 가치는 2조원 정도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SK바이오팜의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제시했다. 약 8조원이 적정한 회사의 가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KTB투자증권은 SK바이오팜의 기업가치를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사업구조를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바이오팜이 코스피200 특례 편입 기본 조건인 시총 4조4000억원을 충족한 만큼 액티브 자금의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급 측면으로 보면 코스피에선 헬스케어 업종 대형주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밖에 없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상장 후 9월 11일 코스피 200 조기 편입 등이 예상됨에 따라 패시브 자금 유입도 있을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 "향후 초집적 반도체 세계적 경쟁력 확보"

>> 1면 '메모리용량 1000배'서 계속

전압이 원자들이 상호작용을 끊어주는 자연차폐막이 형성되는 현상을 이용해 마치 진공에 있는 것처럼 반도체 안에 존재하는 산소원자 4개씩을 개별적으로 스위칭해 메모리 소재로 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 낸 것이다.

또 정보저장을 위해 적어도 원자 수

천 개 이상이 모여 만든 수십 나노미터(nm) 크기의 도메인이 필요하다는 기존 이론과는 달리, 1비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물질 내 최소 크기 영역 도메인이 0.5nm에 불과한 개별 원자 4개 묶음에 정보를 저장, 일반 반도체에서도 단 일원자 수준의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했다.

특히, 산화하프늄(HfO2)이라는 산

화물은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 공정에서 이미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이어서, 원자 이론의 상업화 적용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희 교수는 "향후 초집적 반도체 분야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으로, 개별 원자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은 원자를 쪼개지 않는 한, 현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집적 저장 기술이 될 확률이 높다"고 연구의 파급력을 설명했다.

이 연구수행은 과기정통부가 계산과

학 등 신연구방법론으로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 추진하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 및 데이터 집약형 공학·과학 분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센터'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 소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 이스타항공 M&A, 3가지 관전 포인트는?

# ☑ 제주항공 노딜선언? ☑ 250억 임금체불 ☑ 노노갈등

양사 간 협상 '시계제로' 상태  
제주항공측 인수 포기 선언 아직  
최종딜 성사 가능성도 남아있어



2일 최중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체불 임금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스타항공의 매각을 위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향후 두 회사가 어떤 길을 갈지 관심이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의 M&A에서 3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직 의원의 결정 및 최종 거래 성사 여부에 대한 제주항공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약 250억원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직원들 간 갈등의 격화 등이다.

먼저, 지난달 이스타항공의 기자회견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제주항공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측은 이미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포기하고, 다음주 중 관련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전 지분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처음 알려진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항공 측의 공식적인 인수 포기 선언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종 딜 성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제주항공 측에 선결 과제 이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지급 보증금이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 대한 설명, 대면 협상 요청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이 선행 조건의 해결을 요청하며 멈춰선 협상이 다시 가동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양사 간 협상을 '시계제로' 상태로 만

들었던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해소 여부도 M&A의 쟁점 중 하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들에게 급여의 40%만을 지급하고, '첫다운'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무급으로 대응해 체불임금만 약 25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제주항공은 지난 5월 7일 이스타항공 측에 체불임금의 선 해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최중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체불임금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향후 이스타항공 측이 법적 책임을 지며 자연스럽게 논쟁이 해소될 가능성도 생겼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에서는 지난 4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스타항공 측이 지난달 9일 체불임금 지급명령 시한을 넘기면서 최 대표이사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본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처음 드러난 직원들 간 갈등도 이스타항공 노사 간 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이스타항공 근로자 대표들도 참석했는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과의 의견 대립을 보인 것이다. 실제 근로자 대표 측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으나,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근로자 대표 선정 관련) 저희는 정상적인 투표라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근로자 대표 5명을 뽑는데, 회사가 5명을 선정해 후보로 올려놓고 투표를 했다"며 "조종사도 한 직군인데, 거기에 조종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노조는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며 야에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직원 없이 술·담배 구매... 일상화 되는 무인 편의점

언택트 구매 증가에 점포수 증가세  
다양한 IT역량 등 신기술 총 집약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DDR점을 이용하는 고객 /세븐일레븐

최저임금 상승과 전례없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편의점 무인점포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보안 걱정없이 안전하게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DT(Digital Transformation)를 강화해 설계한 '시그니처 DDR점(서울 중구 수표동 소재)'을 1일 오픈했다.

해당 점포는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롯데데이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롯데 그룹 계열사의 IT역량과 신기술이 총 집약됐다.

그간 세븐일레븐의 스마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다소 제한된 상권 중심으로 점포를 확대해 나가며 가맹 비즈니스 안정성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지난 2017년 5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에 '핸드페이', '무인 계산대' 등을 갖춘 최초의 시그니처 매장(1.0모델)을 선보인 이후, 이듬해 인공지능결제 로봇 '브니(VENY)' 개발과 함께 인오피스(In-Office), 인팩토리(In-Factory), 주유소 등 다양한 특수상권(2.0모델)에 들어서며 로드샵 진출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 왔다.

세븐일레븐 측은 시그니처 3.0모델을 통해 편의점의 본질적 가치인 24시간 운영을 지키고, 언택트 소비 트렌드

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편의점 쇼핑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화 가속도...인증도 간편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인 점포 도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GS25와 CU도 무인점포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GS25는 무인, 하이브리드(야간 무인)형 점포 등 스마트스토어를 현재 100여점 운영하고 있다. CU는 130여개의 무인 점포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도 직원의 검사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CU와 GS25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배와 술 등을 구매할 때 필요한 성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에 담배나 술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 QR코드나 바코드 스캔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워크 메인 라운지에 도입된 이마트24 SELF MINI /이마트24

이마트24는 초근접 컨셉의 매장을 선보였다. 이마트24는 공유사무실 플랫폼 위워크(WeWork)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워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13개 지점에 셀프미니 편의점을 입점시켰다. 위워크 메인 라운지 공간에 편의점 제품이 진열된 무인 키오스크를 배치해 제품 구매뿐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이나 휴식 역시 쉽게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편의점을 일상 업무 공간에 녹여낸 것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일자리 감소 우려  
이같은 무인화 점포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모바일결제나 무인 매장 이용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또,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美 나스닥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고용지표 개선에 부정적 요인 극복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지수가 1일(현지 시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우려 등 다른 부정적인 요인을 이겨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95.86포인트

(0.95%) 오른 1만154.63에 장을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23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9일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2.29% 오른 반면 에너지와 금융주는 각각 2.49%, 1.04%씩 하락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 LG화학,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1~5월 점유율 전년 동기비 4계단 ↑

LG화학이 올해 1~5월 전세계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계단 급상승한 수치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4위와 7위로 세계 10위권을 수성했다.

2일 시장분석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5월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70.5% 급등한 7.8GWh 사용량으로 순위도 4위에서 1위로 뛰었다.

삼성SDI는 사용량 2.1GWh로 전년 동기 5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SK이노베이션도 1.3GWh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두 계단 상승한 7위에 안착했다. 올해 1~5월 전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32.5GWh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23.9%



LG화학 여수공장 전경. /뉴시스

감소한 수준이다.

SNE리서치는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2위를 차지한 CATL과 3위 파나소닉 등 대다수 일본계 및 중국계 업체들이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선전을 이어갔다. 한국계 3사 모두 시장 점유율이 늘면서 이들 3사의 점유율 합계가 전년 동기 16.4%에서 34.8%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김수지 기자

## “연체우려 자영업자에 지원방안 긴급요”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8개 시중은행장과 조찬, 지원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금융지원 방안들이 끝나가면서 감독당국이 은행에게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들이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체우려 자영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일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김원

업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매출·수익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긴급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지방銀, 비효율 점포 없애고 ‘디지털금융’ 분골쇄신

점포관리, 타격 아닌 경영전략차원  
BNK부산銀, 디지털부문 인력 강화  
DGB대구銀, 비대면 대출연계 서비스

지방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준금리 인하 등 겹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비효율 점포 통폐합과 빠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 대부분은 점포 통폐합을 진행 중이다. 전북은행은 이달부터 서울 성북점, 세종시 세종아름점 두 지점을 줄이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울산 공업탑과 성안동, 경남 창원 자은동 지점, BNK부산은행은 경남 창원 팔용동지점, 양산공단지점, 부산 온천3동영업소, 연산자이영업소 등의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구은행도 지난 3월 대구 동산의료원출장소 영업점 임시중단을 포함해 대구·경북에 지점 4곳을 상반기 중 정리했다.

지방은행의 지점 통폐합 결정은 일시



(왼쪽부터)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사옥 전경.

각사

적인 타격보다는 경영전략 차원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통폐합 결정과 무관하지 않지만 점포 관리는 한 두 달새에 빠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유동인구, 상권 등의 복합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존 점포를 줄이고 있는 지방은행은 생존을 위해 ‘디지털 금융’을 모색 중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금융권 디지털·

연택트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

BNK부산은행은 지난 1일 인사이동을 통해 디지털금융 대응을 위한 디지털·IT 부문 인력을 강화했다. 승진 명단에 IT개발부, IT 기획부 등을 포함하면서 IT부문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인사 강화에 대해 “코로나19사태로 언택트 비즈니스를 경험한 고객들의 니

즈가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 일상화시킬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로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5월 ‘언택트 영업부’를 신설했다. 기존 디지털 전략부는 전략·기획에 집중하고, 비대면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새로

게 꾸렸다. JB금융지주도 계열사를 합쳐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열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디지털 총괄 조직을 신설하며 책임자로 박종준 상무를 선임한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금융분야 사업자로 선정돼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개인 운전 정보, 주유 정보, 차량 정비 정보 등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GB대구은행도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활로 모색에 나선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아실’과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대출 연계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새 주인 찾는 저축銀 “M&A규제 풀어달라”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 성황리

JT·민국·대원저축銀 등 매물로  
영업구역 다른 은행간 합병 제한  
금융당국, 규제체계 개편방안 마련



저축은행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알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들은 물론 경기권 저축은행, 일본계 저축은행까지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JT트러스트그룹이 JT저축은행 지분 100% 매각에 나선다. JT트러스트그룹은 JT친애저축은행과 JT캐피탈, JT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일본계 금융사다.

JT저축은행은 현재 경기와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1조4164억원, 순이익은 181억원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나온 저축은행 매물 중에서는

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이 제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M&A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혁신경제 방안’을 발표하고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은행을 뛰어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영업지역 규제를 형평성있게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M&A를 허용하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이후 저축은행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M&A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NH농협銀-태평양-હે슬란트

실질적 쟁점 논의, 업계 의견 공유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헤슬란트, 태평양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했다.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뤄졌으며, 개정 특금법의 실질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운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은행의 디지털자산커스터디서비스(농협은행류창보 파트장)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지난 1일 태평양 신제운 고문(전 FATF 의장, 전 금융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망(હે슬란트 노진우 대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KISA 이상무 팀장, 태평양 황선철 고문) 등으로 진행됐다.

또 금융감독원 이해봉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의 진행으로 금융·법률 업계 패널과 가상자산 사업자 패널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열렸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효과적인 금융 솔루션 ‘고정지출 월납관리’

신한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

신한은행은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정지출 월납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정지출 월납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등록한 금융기관의 계좌거래, 카드내역 등을 분석해 통신비, 대출이자, 학원비, 자동납부 등 매월 반복적인 지출을 꼼꼼히 살펴 자가 진단하고, 통신요금 추천과 정기결제 관리, 할인카드 추천 등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내 통장 리포트 요약 ▲정기지출분



석 ▲지출관리솔루션 ▲소비컨설팅 요약 등의 흐름으로 지출의 종합리프트를 제공해 고객이 한눈에 고정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선택하면 연간 절약되는 금액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알 수 있다. /안상미 기자

### 신한카드

터치결제 이용 1000만건 돌파

신한카드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신한페이판 터치결제(터치결제)’ 누적 이용 1000만건 돌파를 기념해 ‘덕분에 천만’ 행사를 진행한다.

터치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협업해 신용카드사 최초로 개발한 모바일 기기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LG전자 주요 스마트폰으로도 터치결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한페이판 앱으로 실물카드 없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명석 기자

## 우리銀 “보이스피싱 앱 탐지… 자동차단”

일 평균 접근 2000여건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 ‘우리원(WON)뱅킹’에서 보이스피싱 악성앱 자동 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해 스마트폰을 원격조종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비스를 통해 일 평균 2000여건의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접근이 발견됐다. 그동안은 해당

객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 피해를 예방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 ‘자동중단’ 기능을 추가했다. 우리원뱅킹 실행시 원격제어 앱 등 악성앱 활성화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해 부정이체를 차단한다.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앱에 접속하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와 함께 앱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정상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용고객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실행 중단해야 한다.

/이명석 기자



# ‘영화 124편 전송 1초’… SK하이닉스, 최고속 D램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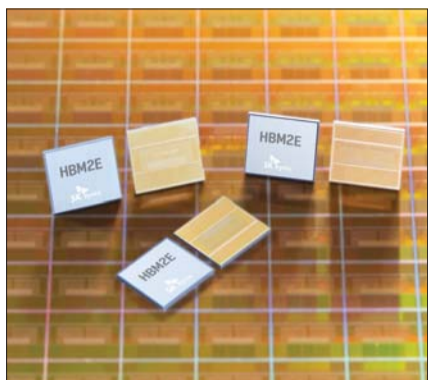
D램 대역폭 올려 속도 높여  
차세대 AI 시스템에 최적화  
용량도 2배 커진 16GB 구현

SK하이닉스도 초고속 D램 양산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초 미세화에 이은 후공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HBM2E’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발에 성공한 이후 10개월만이다.

HBM2E는 D램 대역폭을 올려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고도의 연산력을 필요로 하는 딥러닝 가속기와 고성능 컴퓨팅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최적화한 메모리 솔루션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



SK하이닉스 HBM2E D램.

초로 HBM D램을 출시하며 초미세 공정에서의 열세를 후공정으로 극복해낸 바 있다. 그러다가 HBM2E 양산에서는 삼성전자에 선수를 빼졌지만, 결국 양산에 성공하며 기술 격차를 극복해냈다.

SK하이닉스의 HBM2E는 초당 3.6 Gbps(기가비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1024개 정보출입구(I/O)로 1초



SK하이닉스 HBM2E D램을 개발한 직원들.

/SK하이닉스

에 460GB(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는 풀HD급 영화 124편을 1초에 전달하는 속도로, 현존하는 D램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용량도 8개 16Gb 칩을

TSV 기술을 활용, 수직 연결해 이전 세대 대비 2배 이상 큰 16Gb를 구현했다.

SK하이닉스 GSM담당 오중훈 부사장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 제품을 개발하는 등 인류 문명에 기

여하는 기술 혁신에 앞장서왔다”며 “이번 HBM2E 본격 양산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세 공정이 수나노대로 떨어지면서 개발 속도와 효율이 지연되는 상황, 딥러닝 등 빠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크게 늘면서 후공정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등 업계는 일찌감치 후공정을 대거 내재화하고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기의 차세대 패키지 사업을 인수하며 후공정 부문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SK(주) C&C “초보자도 ‘AI 전문가’ 돼요”

AI 플랫폼 론칭 기념 온라인 세미나

AI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SK(주)C&C는 ‘시티즌데이터사이언티스트(이하 시티즌)를 위한 AI 플랫폼 론칭 웨비나’를 오는 8일에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티즌이란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 초보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AI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누구나 웨비나에 참여 가능하며 7일까지 등록 사이트나 클라우드제트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SK(주)C&C 시티즌들이 SK(주)C&C의 AI 플랫폼을 활용해 실무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에 AI와 데이터를 접목시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하고 외부 디지털 협력자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플랫폼 경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플랫폼 레볼루션’의 저자 마셜 벤 엘스타인과 캐나다 AI 솔루션사인 엘레멘트 AI사의 CEO인 장 프랑스와 가네 등이 출연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시티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 창출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SK(주)C&C 이기열 BM혁신추진총괄이 ‘SK(주)C&C AI 통합 플랫폼’ 주제 발표에 나서 디지털 시대 시티즌의 등장 배경과 이들이 만들어낼 디지털 업무 및 비즈니스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티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SK(주)C&C AI 플랫폼의 지원과 기여를 강조한다.

SK(주)C&C의 김영대 디지털 테크센터장은 우버와 에어버스, 넷플릭스 사례를 통해 전통 산업 서비스가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I 플랫폼을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했는지 설명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GS칼텍스, 복합수지 기반 친환경 경영 박차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 10% 넘어  
폐플라스틱 활용 ‘업사이클링’ 확대

GS칼텍스가 자원 효율화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원료 적용 확대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이 전체 복합수지 생산량의 10%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을 위해 재활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연간 6.1만톤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나무 9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으며, 자동차 연간 배출가스 기준 환산시 승용차 3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동일하다.

GS칼텍스는 앞서 2010년부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친환경 복합수지



GS칼텍스의 친환경 복합수지 인포그래픽.

연간 생산량은 2만5000톤으로 초기 생산량에 비해 2.5배 이상 성장했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물성의 재료를 혼합해 성능, 품질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기존의 채굴, 사용, 폐기에 의존하는 자원 소모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폐기물 최소

화에 따른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 순환 비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이 필수적이다”며 “GS칼텍스는 향후 글로벌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연산 30만톤의 복합수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준중형 자동차 1대를 제작하는데 복합수지가 약 50kg가량 들어가며, 준중형 자동차 6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특히 자동차 및 가전용 소재인 복합수지는 2006년 중국 허베이성 랑팡, 2010년 장쑤성 쑤저우, 2011년 체코, 2016년 멕시코 등 중국은 물론 유럽, 북미 시장에도 진출해 고품질의 소재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SKT, ‘5G 인빌딩 중계기’ 글로벌서 인정

‘스몰셀 어워드’서 수상

SK텔레콤은 스몰셀 포럼이 주최한 ‘스몰셀 어워드 2020’에서 ‘스몰셀 설계 및 기술 상용화’ 부문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스몰셀 포럼은 AT&T, 보다폰 등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사 60여 곳과 삼성전자, 에릭슨, 화웨이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 9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매년 혁신적인 스몰셀 기술 및 상용화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스몰셀 설계 및 기술 상용화’ 부문에서 수상한 ‘5G·4G 듀얼 모드 RF 중계기’는 실외 기지국의 5G·LTE 전파를 받아 빌딩, 터널, 지하공간 등 전파가 닿기 어려운 실내로 증폭·확산시켜 통신 커버리지를 넓히는 핵심 장비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류탁기 SK텔레콤 엑세스 네트워크 개발팀 리더(왼쪽 1번째)와 직원들이 스몰셀어워드에서 수상한 듀얼 모드 RF 중계기를 들고 스몰셀 어워드 수상 화면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5G와 4G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듀얼 모드 RF 중계기를 상용화했으며,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협력해 유럽의 5G 환경에 최적화했다. 지난 3월 독일 현지에서 필드 검증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3분기부터는 고객을 대상으로 체험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김나민 기자 silkni@

## LG전자, 빌트인 ‘시그니처’ 와인셀러 출시

아일랜드 빌트인으로 동선 최적화

LG전자가 새로운 빌트인 냉장고를 국내에 선보인다.

LG전자는 2일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인 아일랜드 와인셀러와 서랍형 냉장고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아일랜드 식탁이나 조리대 아래에 빌트인으로 설치하는 언더카운터 타입이다. 오픈형 주방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홈코노미 라이프 트렌드에 주목해 개발했다. 아일랜드 식탁을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음료, 간편식품, 식재료 등을 쉽게 보관하고 꺼낼 수 있도록 주방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아일랜드 와인셀러는 위쪽과 아래쪽 공간의 온도를 서로 다르게 유지할 수 있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분

해 최대 41병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와인 맛, 풍미, 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습도,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한다. 와인셀러 내부 선반의 고급스러운 너도밤나무 원목 소재와 외관의 티트 글래스는 인테리어 가치를 높인다.

편의 기능도 다수 탑재했다. 고객이 다가가면 와인셀러가 이를 감지해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글래스 도어 왼쪽 상단에 손을 대면 문이 10도 가량 자동으로 열린다. 이어서 별다른 동작이 없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이 서서히 꺼진다.

아일랜드 서랍형 냉장고는 위아래서랍 모두 식품을 냉동하는 영하 23도(°C)에서 쌀·잡곡·열대과일을 보관하기 좋은 영상 10도(°C)까지 필요에 따라 19단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냉장고는 89L 용량으로, 내부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해 정온 유지 및 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서랍형 냉장고. /LG전자

생 관리에 뛰어나고 내구성도 높았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로 안전하게 서랍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도어를 끝까지 닫아줘 냉기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아일랜드 와인셀러의 가격은 300만원이며 서랍형 냉장고는 스테인리스 패넬 적용 시 350만원이다.

/김재용 기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잠시<sup>詩</sup>

혈액 수급이 부족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의 헌혈이 필요한 때입니다

## 조용한 응원

시청 앞 광장을  
하나 된 열정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

그 뜨거운 피가 이제는  
투명한 고무관을 타고  
간절한 이들에게  
행복을 채워주고 있다

그 소리 없는 응원은  
들리지 않지만  
그때의 함성만큼이나  
뜨겁게 울려 퍼질 것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 삼성전자, '뉴 셰프 컬렉션' 공개

##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가전 결합

프로젝트 프리즘 3번째 라인업 비스포크 개념, 내부까지 확장 용도 따라 수납구조 직접 선택

삼성전자 셰프컬렉션이 '프로젝트 프리즘'을 입었다. 외관뿐 아니라 기능으로도 선택 폭을 넓혔다.

삼성전자는 2일 서울 성수동 레이어 57에서 '뉴 셰프 컬렉션'을 공개하고 공식 출시했다.

뉴 셰프컬렉션은 '프로젝트 프리즘'의 3번째 제품 라인업으로, 삼성전자는 빅데이터를 통해 고급 가전 제품 수요층을 분석해 제품을 개발 기획했다.

프로젝트프리즘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처음 공개한 가전 제품 개발 비전으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분석해 각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비스포크 냉장고와 그랑데 AI 건조기·세탁기에 이어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 컬렉션에까지 적용됐다.

뉴 셰프컬렉션은 비스포크 개념을 내부에까지 확장한 첫 제품이다. '비스포크 수납존'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수납구조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것.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이 서울 성수동에 마련된 체험존에서 '뉴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선택 가능한 스타일은 냉장실 하단을 기준으로 5개다. 195만건의 소비자 식품 구매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분류됐다. 구매 후 필요에 따라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

▲육류·생선을 전문적으로 보관해주는 '미트 앤 피쉬' ▲와인과 캔음료 보관 액세서리가 적용된 '와인 앤 치즈' ▲과일과 채소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베지 앤 프룻'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면서도 가정 간편식(HMR)에 최적화된 '패밀리 앤 쿡' ▲건강 보조 식품이나 원물 식재료 보관에 용이한 '헬스 앤 웰빙' 등이다.

우측 하단 공간은 기본적으로 냉동실이지만, 식재료에 따라 냉장고나 살얼음실, 김치냉장고 등으로 온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스포크 수납존 하단에는 공통으로 '셰프 멀티 팬트리'를 적용해 -1도에서 13도까지 용도에 따라 개별 설정 가능하다. 최첨단 기술을 총집합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

프로젝트 프리즘 답게 외부 패널은 선택할 수 있다. 마레 블루, 세라 블랙, 혼드 네이비, 혼드 베이지, 혼드 라이트 실버 등 5개 색상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SK그룹, AI기술 실제 업무 도입방안 논의

AI 실무자 온라인 워크숍

고객에 더 큰 경제·사회적 가치 제공

SK그룹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SK그룹 AI 실무자 온라인 워크숍: 사용가능한 AI'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SK그룹에서 AI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 더 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렸으며,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건설, SK플래닛, SK주식회사C&C, SK매직 등 8개 관계사의 AI 실무자가 현장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내 교육 플랫폼 '마이씨니'를 통해 일반 구성원 300명도 함께 진행됐다.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으며, 온라인으로 발표 내용을 생중계했다.

대표적으로 SK매직은 렌탈 계약을 AI로 검증해 실수나 고의로 잘못 체결되는 내용을 잡아내는 '매직아이(Magic-Ey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실제 테스트 결과 기존 방식에 비해 9배 이상 높은 확률로 비정상 계약을 찾아내



SK그룹 주요 관계사의 인공지능(AI) 실무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온라인 생중계 워크숍에 참석해 업무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SK

면서, 회사와 고객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웨이퍼 오염 불량을 낮춘 사례를 소개했다. 공정상의 불량 사례를 디지털 이미지로 축적하고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SK건설도 수주 시 사업주와 발주 내용을 입력하면 예상 스케줄을 산출해주는 등, AI를 활용한 건설 기자재 조달 일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워크숍은 패널 토의로 마무리됐다. 토의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상황에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충을 공유했으며, AI를 통해 회사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김재용 기자

## 아시아나, 포스트코로나 대비 항공기 정비 강화

항공기 중정비 일정 앞당겨 수행  
대당 평균 정기점검 항목 10.8건 추가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해 항공기를 비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주기된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중정비 조기 수행을 통한 정비 항공기 수량을 늘리고 외주 정비를 자체 정비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난 5~6월 진행 예정이던 5대의 항공기 중정비 일정을 앞당겨 3~4월 중 완료했다. 또한 외주 정비 예정이었던 4대의 항공기에 대해 자체 정비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중 9대에 대해 추가 중정비를 수행했으며, 총 27대(연초 계획대비 51.9%)의 중정비를 완료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 A350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2~12월) 중정비 대수를 52대에서 55대로 확대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주기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비 메뉴얼상 정기 점검 항목 이외 ▲주요 전자장치 ▲유압장치 ▲Flight Control 계통 등에 대해 추가 점검 항목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정비를 강화했다.

항공기 대당 평균 정기 점검 항목 10.8건에 추가 점검 항목 13.8건을 더해, 대당 약 25건의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율상으로 정기 점검 대비 127.6%의 항목을 추가 점검하는 셈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모비스, 美 실리콘 테크펀드에 250억 출자

미래차 전략에 필요한 우군 확보

현대모비스가 미래 자동차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요소 기술 전문 테크펀드인 'ACVC파트너스'와 'MOTUS벤처스'에 총 2000만달러(약 250억원)를 출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전동화, 커넥

티비티로 대표되는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전략에 필요한 글로벌 우군들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대모비스가 출자하는 'ACVC파트너스'와 'MOTUS벤처스'가 발굴한 스타트업들은 주로 차세대 센서, 생체인식, 로보틱스 분야의 북미지역 스타트업들이다.

1~2년 내에 상용화하기는 어렵지만

미래차 시장에서 유망기술로 손꼽히는 분야들이다. 이들 테크펀드는 대학 연구소와 리서치 기관의 유망 기술을 초기에 발굴하는 안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과 협업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기술이 고도화되면 대규모의 지분투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LGU+ "해외서 무제한 음성통화 하세요"

U+해외로밍 음성전화 무제한 이벤트

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객과 코로나19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을 위해 'U+해외로밍 음성전화 무제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해외국가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장기 로밍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용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U+로밍 요금제 이용자 당 사용일수는 지난해 10~12월 평균 5.2일에서 올해 3~5월에는 14일로 늘어났다.

LG유플러스는 78개국에서 고객이

사용기간을 선택해 대용량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전화 수신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인 '제로라이트'와 데이터·음성전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제로라이트' 이용자는 7~9월 세 달간 음성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는 ▲제로라이트 요금제 4종(제로라이트 2GB·3.5GB·4GB·8GB) ▲제로라이트 1020 요금제 4종(3GB·4.5GB·5GB·9GB) 등 총 8종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위니아딤채, 23kg 대용량 드럼세탁기 출시

부피 큰 이불·수건도 한번에 세탁

위니아딤채가 솜이불까지 빨 수 있는 대용량 드럼세탁기를 새로 선보인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1등급을 획득했다.

위니아딤채는 2일 '위니아드럼세탁기' 23kg 대용량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드럼세탁기 라인업 중 최대 용량으로, 부피가 큰 이불이나 수건, 의류 등을 한 번에 세탁할 수 있는 넓은 크기를 자랑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도 1등급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위니아 23kg 드럼세탁기.

/위니아딤채

있다.

세척력은 '크린스' 기능으로 대폭 강화했다. 세척력에 최적화해 설계된 노즐이 강력하게 물을 분사해 세제 용해도를 높이고 옷감에 세제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돕는 원리다. /김재용 기자



# 연기금 따라 투자했더니... 한달 수익률 코스피 2배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종목 선택  
한달간 네이버 1154억 최다 순매수  
LG전자, 포스코케미칼 등 뒤이어  
매수 상위 20종목 상승률 10.3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증시상승 랠리를 수익률 제고 기회로 삼지 못했던 연기금이 이번엔 달라진 모습이다. 횡보 국면에 접어든 증시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장기 투자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개인투자자라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1154억원 어치를 담으며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올랐다. 이어 LG전자(770억원), 포스코케미칼(745억원), SK하이닉스(726억원), 삼성물산(711억원), SK이노베이션(5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상위 20개 종목을 분석해본 결과 한 달간 평균 상승률은 10.3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난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 주가 추이〉

종목(매수금액)	5월 29일	6월 30일	등락률(%)
네이버(1154)	22만6000	26만7000	18.14
LG전자(770)	5만9300	6만3200	6.57
포스코케미칼(745)	5만5500	7만5100	35.31
SK하이닉스(726)	8만1500	8만5100	4.41
삼성물산(718)	9만9100	11만6000	17.05
SK이노베이션(566)	11만8500	13만1000	10.54
카카오(482)	26만3500	26만7500	1.51
삼성바이오로직스(427)	62만2000	77만5000	24.59
기업은행(410)	8280	8080	-2.42
더블유게임즈(357)	6만7000	7800	19.1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승률(3.87%)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개 중 16개가 플러스 수익이었다. 연기금은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들로 분산 투자 효과를 노리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은 순매수 순위 3위에 오른 포스코케미칼이었다. 지난 5월 말 5만5500원을 기록했던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30일 7만5100원에 거래를 끝냈다. 무려 35.31% 올랐다. 하반기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

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고객사의 중대형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고 핵심 성장 동력인 에너지 소재 사업부의 고성장이 전망된다는 평가다. LG화학(25.60%), 삼성바이오로직스(24.59%), 하이트진로(21.66%)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기금은 ‘포스트 코로나’로 대표되는 언택트(비대면·Untact) 종목을 비롯해 2차전지주 등을 주로 담았다. 이 전략은 향후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른 주가 회복세 둔화가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2차전지 등 미래 성장주를 조정시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수익률에서 가장 큰 손실이 난 것은 LG유플러스(-7.23%)였다. 나머지 3개는 모두 은행주가 차지했다. 우리금융지주(-3.51%), DGB금융지주(-2.86%), 기업은행(-2.42%) 주가가 떨어졌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때문에 은행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은행주 급락과 국내 증시 약세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순매도 상위 20개 종목의 지난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0.39%를 기록했다. 삼성전자(2456억원), 삼성SDI(1078억원), 셀트리온(849억원), 포스코(713억원), 아모레퍼시픽(710억원) 순으로 팔아치웠다. 20개 종목 중 13개가 같은 기간 주가 하락을 겪었다.

건설과 철강, 자동차 등 대형 경기민감주를 매도했다. NH투자증권(-15.01%)에 이어 수익률 손실이 크게 난 고려야연(-11.38%)을 비롯해 롯데케

미칼(-11.18%), S-Oil(-10.19%), 현대중공업지주(-10.06%), 현대건설(-3.37%), 포스코(-3.87%) 등 손실을 본 대다수 종목이 경기민감주였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번지며 호텔과 면세 업종도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강원랜드(-11.16%), 호텔신라(-10.36%), 신세계(-10.00%) 등이 하락했다. 해당 종목 모두 연기금 순매도 순위 상위에 올랐다.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안을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다. 지금처럼 주도주 색채가 뒤바뀌는 순환매 장세에서 연기금의 매매동향이 주식시장 방향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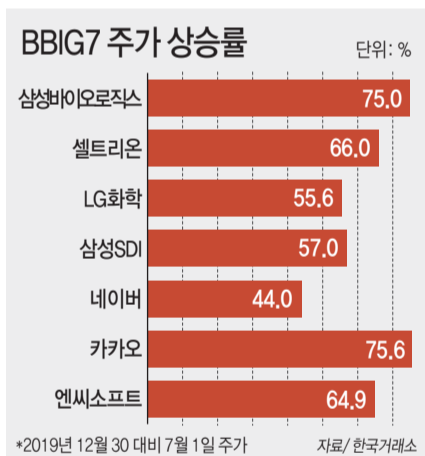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는 “연금 특성상 장기적인 수익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분산투자가 첫 번째”라며 “합의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연기금보다 부족한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 이후 평균 5% 중반대의 수익률을 내왔다”고 설명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 코로나發 급변동 장세, BBIG 韓증시 주도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바이오·언택트 종목 집중  
BBIG7 시총 16.3% 차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급변동 장세에서 ‘BBIG’로 불리는 성장 종목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다.

‘BBIG’란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으로 대변되는 성장 종목이다. 이들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SDI,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는 ‘BBIG7’으로 불린다. 엔씨소프트를 제외한 6개 업종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0위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BBIG7’의 시가총액 합계는 238조598억원이

다. 유가증권시장 시총에서 7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에 달한다.

바이오 대표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시장 시총 50조원을 넘어섰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에 힘입어 수혜주로 떠올랐다. 삼성SDI와 LG화학은 2차 전지주로 불리며 테슬라 상승분으로 인한 수급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오는 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겨난 비대면(언택트) 대표 종목이다. 대표적인 게임주인 엔씨소프트도 강세다.

반면 작년 12월 30일 기준 시가총액 10위권에 머물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은 모두 주도주에서 밀려났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 사회 현상 변화에 따른 수혜가 BBIG7 업종에 집중됐다”며 “특히 글로벌 정부 정책 수혜, 여기에 지역 간 이동 제한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며 언택트 기

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BBIG7이 3분기에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바이오·언택트 종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에서 BBIG7 주도주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주도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등 IT·자동차 등 업종 대표주를 통한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LH 한-베트남 경협 산단 2개구역 개발계획 승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9일 해외진출 희망 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경협산단) 조성사업 407만㎡의 개발계획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승인된 구역은 흥옌성 산업도시 내 LH의 사업참여가 예정된 3개 대상지(클린산단 143만㎡, 산단1구역 264만㎡, 도시구역 378만㎡) 중 클린산단, 산단1 구역으로, 이번 인·허가 승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등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이자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국가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LH는 클린산단 구역을 시작으로 산단1구역·도시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현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베트남 경협산단은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쪽 약 30km에 위치한 2645만㎡ 규모의 흥옌성 산업도시 내 조성되며,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인근 국제공항 및 항만으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배후로는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존 공장들과의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어 투자여건이 우수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정영채 “책임 피할 생각없다... 정리하는게 우선”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 밝혀지면 자리 연연 없을 것”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고객이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가 좀더 완벽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책임이 밝혀지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상장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판매사 입장에서 역올한 측면이 있지만 고객이 더 역

올할 것”이라며 “펀드 판매 시스템이나 사모펀드 관련 제도 미흡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태는) 도의적인 문제와 법리적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괴리가 많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제시한 사모펀드 판매 기준에서는 판매사가 판매한azzi 내용을 점검해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매달 사모펀드 잔고를 확인하고 운용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운용사는 펀드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며 “법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손님(투자자)이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사가 부담해야 할 고통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게 그만두는 것이라면 오히려 속이 편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고객이나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사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사태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환매중단 고객에 대한 선보상과 관련해 그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때 있다”며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의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85.86%에 달하는 4528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한국투자증권은 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 대신증권 45억원, 한화투자증권이 19억원을 판매했다.

/박미경 기자



# ‘동행세일’에 동행한 공기업들… 장관이 맛보니 ‘완판’

박영선 장관 일일 판매도우미 자처  
중진공·중기유통센터 ‘특별판매전’  
전국 633개 전통시장·상점가 동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산하 기관 등이 ‘동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동행세일의 발걸음이 3일부터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로 옮겨간다.

이는 같은 날 서울 송례문에서 열리는 특별행사와 함께 동행세일 분위기를 전국 곳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서도 볼거리, 즐길거리 등 특색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들의 발걸음을 이끌 예정이다.

5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청주 도시재생활성화센터에서 열리는 현장행사에선 리빙, 식품, 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총 270개 상품이 ▲라이브커머스(30개) ▲브랜드K 상품관(108개) ▲중소기업우수상품관(116개) ▲지역상품관(16개) 등으로 구분돼 고객을 맞는다. 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인 상품들은 중기부가 공모했거나 지자체가 업선해 고른 것들도 기존가격보다 최소 30% 이상 할인해 판매한다.

서울에선 송례문 일대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가 3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이날 밤 21시부터 MBC, 네이버 VLIVE, 유튜브를 통해 방영될 특별행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송례문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청주 내덕자연시장에서 동행세일 행사 관계자들이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소진공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동행세일 오픈행사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브랜드K 제품인 견과바(두레촌)를 판매, 모두 매진시키는 등 판매 확산에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박 장관의 완판에 이어서 1일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바통을 이어받았다. 또 3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판매 도우미로 나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지난 1일 시작한 ‘중소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을 동행세일 기간인 12일까지 현대백화점 서울 신촌점에서 이어간다.

이런 가운데 중기유통센터는 동행세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통해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기록했다.

온라인 기획전에는 총 471개 소상공인이 티몬, G마켓, 11번가 등 11개 오픈마켓과 SSG닷컴, CJ몰 등 5개 종합·전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경북 사과, 돈가스, 참기름 등



박영선 장관이 지난 26일 부산에서 진행한 라이브커머스에서 판매 도우미로 나서 견과바를 판매하며 제품을 맛보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의 인기가 높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열리는 동행세일에선 경기·인천지역 113곳, 대전·세종·충청 87곳 등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총 633곳이 동참해 각종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연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표 이미지에 들어간 문구처럼 국민들의 작은 소비 날것 하나 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세일 날개달고 제로페이 ‘순항’

시행 1년 6개월만에 성과 두각  
소상공인에 0% 수수료 ‘강점’

제로페이가 생활속 결제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잡으며 기존 신용카드와 경쟁을 예고했다. 중소기업부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이 도입 1년 6개월만에 5000억원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지난해 1월 시작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이번주부터 시작한 동행세일 기간에만 240억원이 결제돼 전국적인 판매·할인행사 영향을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3월 이후 가맹점 신청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6월 말 기준 총 56만9000개로 지난해 말보다 75.6% 늘었다. 가맹점의 업종별 현황은 음식점이 14만개(24.6%)로 가장 많았다. 이후 생활·교육 10만6000개(18.6%), 편의점·마트 7만4000개(13.0%), 기타 5만4000개(9.6%), 의류·잡화 4만6000개(8.1%) 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해 0%대의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인 52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은 고객이 제로페이를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어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 유리하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제로페이 모바일

일상상품권으로 지급돼 제로페이 성과에 일조했다.

권대수 정책관은 “지역사랑상품권·재난지원금 등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결제금액은 음식점이 22.7%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어 편의점·마트 21.0%, 생활·교육 14.5%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모바일상품권 결제금액도 편의점·마트가 22.4%로 가장 높았다.

한편 동행세일과 연계해 제로페이를 통해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결제사별로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결제액 5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3일부터 앞으로 2주간 제로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 후 인스타그램에 결제 인증샷 및 해시태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준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윤완수 이사는 “제로페이가 (정착이 늦어) 어렵다는 소리는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자리를 잡았다기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로페이는 플라스틱(신용)카드와 경쟁을 통해 앞으로 미래 앱 결제 시장에 주요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규제 전 서울서 1.3만여 가구 분양… 작년 약 7.5배

둔촌재건축 등 관심단지 포함

이달 중 서울에서 1만3000여가구의 일반분양 아파트가 쏟아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 시행 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서울에서 분양예정인 단지는 16곳, 3만1368가구로 이 가운데 1만283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7월 1708가구의 약 7.5배 달한다. 둔촌재건축 등 관심단지는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럿 포함돼 있다.

업계전문가는 “분양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등 시장 격변이 예상되는 8월을 앞두고 조합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달 분양단지로는 롯데건설은 성북, 노원, 광진 등 강북권 주요지역 3곳에서 재개발 단지 분양에 나선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 길음역세권 재개발을 통해서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59·84㎡ 395가구 중 218가구를 일반분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투시도.

양한다. 반경 1km 내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길음시장 등이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95-3 일원에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된다. 21~97㎡, 1163가구 중 72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자양동 236 일원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59~122㎡ 878가구 중 48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에 ‘둔

촌주공 재건축’을 분양한다. 단지는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을 통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4~170㎡ 6702가구 중 12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신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 도곡역, 매봉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으로 매봉산, 양재천 등의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포스코 ‘미얀마 상하수도사업’, 환경부 지원 선정

수주경쟁력 향상 위해 전액 지원

포스코건설이 추진중인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이 우리 정부의 해외 환경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포스코건설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사업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필요한 6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이 추진 중인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20만 인구가 하루에 사용 가능한 4만톤의 정수장 1개소와 하수처리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90만달러다.

포스코건설은 수요처 요구에 맞게 빗물이나 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할



에코그린시티 조감도. /포스코건설

수 있는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기술’과 수자원 확보, 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등 빗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순환 개선형 빗물관리시스템(PID)’ 등의 기술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 첫 수혜자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5개월간 스마트기술 적용 및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 후 타당성이 검증되면 내년 8월에 수주를 하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일 “회사의 친환경 스마트 기술력과 개발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본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 환경 사업의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해주세요!





“트릭스터에 리니지 감성 담아”

## 엔씨, 엔트리브 신작 3종 공개

트릭스터M·팡야M·H3 공개  
추억의 게임 모바일로 재도약  
“귀여운 리니지’ 선보일 것”

엔씨소프트가 자회사를 통해 과거 인기 게임 띄우기에 나선다. 과거 엔트리브소프트의 인기 PC 게임 지식재산권(IP)에 엔씨소프트만의 노하우를 결합해 모바일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일 엔씨소프트는 서울 강남구 더라운에서 신작발표회를 열고 자회사 엔트리브의 신작 3종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작은 ‘트릭스터M’과 ‘팡야M’, ‘H3’다.

이성구 엔씨 총괄 프로듀서는 기대작인 트릭스터M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오리지널 철학과 정통성이 있다”며 “트릭스터의 감성에 ‘리니지’의 철학과 노하우를 담아 ‘귀여운 리니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트릭스터M은 엔트리브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서비스했던 ‘트릭스터’ IP를 활용해 만든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원작에서 인기있던 ‘드림 액션’과 2D 도트 그래픽을 계승했다.

원작과 달리 캐릭터간 충돌처리 기술과 끊김없이 이어지는 ‘심리스 월드’를 구현했다. 미완성으로 막을 내렸던



이성구 총괄 프로듀서가 2일 열린 '엔트리브소프트 신작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원작 결말 스토리도 보강하고 매듭지었다.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글로벌 40개 국가에 출시된 ‘팡야’는 ‘팡야M’으로 재탄생한다. 팡야M은 팡야 IP를 활용한 모바일 판타지 골프 게임이다.

엔트리브는 원작의 그래픽을 업그레йд하고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조작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자는 200여종의 필드와 새롭게 선보이는 ‘팡게이’ 스킬로 판타지 요소를 즐길 수 있다.

노우영 팡야M 디렉터는 “팡야는 캐주얼 게임 한계를 넘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비온드 팡야’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은 새 변화를 위한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보인 프로야구 ‘H3’에는 엔씨소프트의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다. 이용자는 엔씨소프트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AI를 H3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경기 리포트와 하이라이트, 뉴스 등의 콘텐츠를 통해서도, 또 잠재력을 보유한 선수를 발굴하는 ‘스카우터’와 ‘졸업’ 시스템, 선수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적시장’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심재규 프로야구 H3 프로듀서는 “H3를 통해 야구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트릭스터M과 팡야M의 경우 기존에 출시했던 해외 시장에도 선을 보일 계획이다. H3는 국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한다.

엔씨소프트는 엔트리브의 신작 모바일 게임 3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카허 카젠 사장, 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

(한국지엠)

창원 사업장 방문해 임직원 격려

카허카젠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 1일 창원 사업장을 방문해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을 위한 시설 투자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조합 및 임직원과 만나 경영 현황을 공유하는 등 현장 경영 보폭을 넓혔다.

이번 카젠 사장의 창원 사업장 방문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미래를 위한 투자 현장을 점검하고, 더불어 회사의 경영 현황 및 도전과제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카젠 사장은 이날 GM의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현재 창원 사업장 내 신축 중인 도장공장의 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면서 현장 안전을 강조하는 한편, 2018년 확정된 미래 계획에 따라 약속된 투자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카젠 사장은 임직원과의 미팅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가 하나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속되고 있고 수입차 시장에서 콜로라도와 트래버스가



한국지엠의 카허 카젠 사장(왼쪽 첫번째)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GM의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창원사업장에서 차질없이 신속되고 있는 도장공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선전하는 등 웨브레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카젠 사장은 창원 공장 방문과 함께 창원 지역 내 웨브레 대리점까지 직접 방문해 영업 일선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가졌다. 임직원을 포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해 온 카젠 사장은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경영현황설명회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현장직부터 사무직까지 전 부문의 직원들과 소규모 미팅을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을 해 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스마일게이트, ‘IP 경영 협의체’로 전환

신임 의장에 성준호 선임

스마일게이트 그룹이 현장 중심 경영 체제로 개편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 경영 체제를 ‘그룹 이사회 체제’에서 ‘그룹 IP 경영 협의체’ 체제로 전환하고,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사진)를 경영 협의체 의장으로 선임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IP 경영 협의체 체제로서의 그룹 경영 체제 전환을 통해 그룹 내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빠르고 투명하게 반영된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준호 신임 스마일게이트 그룹 IP



경영자(CEO)로서 그룹 경영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는 그룹에 신설된 비전 제시 최고 책임자(CVO)를 맡아 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또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역할도 지속적으로 겸임한다. /김나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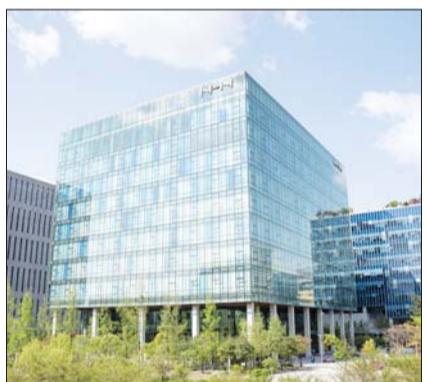
## NHN, 게임 자회사 통합... 캐주얼 게임 강화

픽셀큐브-스타피쉬 합병

NHN이 자회사 통합 및 사업조직을 개편하며 올 하반기, 게임사업을 확대한다.

NHN은 게임 개발 자회사 NHN 픽셀큐브가 1일자로 NHN 스타피쉬를 흡수 합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NHN은 모바일 캐주얼 게임 중심 NHN 픽셀큐브와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 NHN 빅풋의 양대 개발 자회사를 중심으로 게임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NHN 픽셀큐브는 2014년 2월, NH



NHN 사옥 '플레이뮤지엄'.

N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게임 개발 및 운영 전문회사다. 일본에서는 ‘라인팝’, ‘라인팝2’, ‘라인팝쇼콜라’로

이어지는 라인팝 시리즈를, 국내에서는 ‘프렌즈팝’과 ‘피쉬 아일랜드:정령의향로’ 등을 출시했다.

흡수 합병된 자회사 NHN 스타피쉬는 ‘PC 한계 게임 고스트’와 ‘모바일 한계 게임 신맛’ 등 주로 캐주얼 보드 게임을 서비스해 왔다.

합병 회사의 대표는 NHN 픽셀큐브의 이승해 대표가 맡게 된다.

NHN 빅풋은 ‘야구9단’ 등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을 오랜 기간 서비스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반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나인 기자

## 카톡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하면 강력 규제

카카오, 법적 조치 ‘무관용 원칙’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금지·삭제 의무가 부여되는 ‘n번방 방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영역을 강화한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 등에서 운영정책을 위반한 이용자는 서비스 영구 이용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24일 타인의 성착취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정책을 신설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새 운영정책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매매 행위, 성범죄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행위, 성적 대상화 등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표현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

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기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운영정책 자체를 명시화하고 알고리즘 윤리현장에도 추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현대글로벌비스, 폭스바겐 장기계약 수주

해상운송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

현대글로벌비스가 유럽 최대 완성차 제조사 폭스바겐 그룹과 5년 간의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맺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폭스바겐 그룹 내 전 승용차 브랜드가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 전체 물량을 단독으로 해상 운송하는 계약이다. 현대글로벌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로부터 따낸 해운 계약 중 사상 최대다.

현대글로벌비스는 2일 독일 자동차 제조기업 폭스바겐 그룹 물류 자회사인 ‘폭스바겐 콘체른 로지스틱’과 5182억 원 규모의 유럽발 중국향 완성차 해상 운송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까지 5년(간기본 3년+ 연장 옵션 2년)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폭스바겐 그룹이 유럽에서 생산한 승용차를 매월 10회에 걸쳐 독일 브레머하펜항과 영국 사우샘프턴항에서 상하이, 신강, 황푸 등 중국 내 주요 항으로 단독 운송한다. 운송 물량은 양사 협의 하에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번 계약은 구간은 세계 자동차 해운시장에서 물량면에서 최대로 평가되는 구간 중 하나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 계약으로 다른 항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송 화물이 부족하던 유럽발 극동항 노선의 선복을 대규모로 채울 수 있게 돼 선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뿌리산업 9만개로 확대·지원

##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범위 확대  
신성장 기반자금 대출규모 늘리고  
226억 산학협력 R&D지원 신설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인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범 정부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삼았으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필드 등 6개로 늘렸다. 부품과 장비를 만들 때 쓰이는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기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했다.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한 건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개편 내용을 반영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올해 중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범위가 넓어지면 뿌리 기업 대상도 기존 3만개에서 약 9만개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뿌리기업의 전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산액 70%는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더욱이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해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이 크다. 또 해외 이전이나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성이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지원을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늘리고, 뿌리기업의 현장으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 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지원을 226억 규모로 신설한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 대책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에서 3년간 8000여명의 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을 위해서 공동폐수시설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뿌리산업의 공급 안정을 위해 '밀크런(Milk Run)'을 도입한다. 밀크런은 업계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유 회사가 축산 농가를 돌면서 우유를 거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뿌리 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 품목과 수입국, 제3자 물류 기관 등 사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부장의 대응 역량 확대에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소·부·장 기술자립에 총력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

## 과기정통부, 지정안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네팩스 청주2 캠퍼스 회의실에서 '제5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은 과기정통부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로,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 13개 국가연구실, 5개 국가연구시설 및 15개 국가연구협의체를 2단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정으로 1단계 지정된 12개 국가연구실 및 6개 국가연구시설과 함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과 관련,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산업현장

과 잘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전문기업 네팩스를 방문해 한 시간 가량 생산시설을 참관하고 기업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 위원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연 협업 노후 및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을 위한 현장의견 등을 공유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부장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연합뉴스

# 이낙연, 7일 당대표 출마 선언할 듯

여의도사무실에 전당대회캠프 꾸려  
김부겸 전 의원도 9일 출마선언 예정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 주자들이 8·29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섰다.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주자들이 시작부터 경쟁하는 모습이다. 당권 레이스 경쟁에 불을 지핀 곳은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께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마에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30평대 사무실을 마련해 전당대회 캠프로 꾸렸다.

그는 당대표 도전에 임하는 자세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밝힌 출마 메시지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쪽해왔다. 또 하나는 조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외면에선 안 된다"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2년 임기 완주할 것"이라며 "김부겸 캠프는 원래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으나,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 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 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일을 연기한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 측은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점도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韓 과실류 未聯서 인기 농식품부, 수출 6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산 사과와 배 등 과실류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증가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신선농산물의 수출활로 모색을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과실류 빅 바이어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수출이 60%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과실류는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60.8% 상승한 100만 달러이며, 특히 한국산 배는 전년 대비 5배, 사과는 4.5배, 포도는 2.5배 이상 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산 과일의 말레이시아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aT는 올해 5월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최대 신선과실류 수입업체인 CHOPTONGGUAN(대표 코에이)과 공동으로 한국산 과실류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라자다와 배달앱 그랩푸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한 결과, 한국산 배와 사과, 포도, 참외 등이 현지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4.4% 증가

라면·김치·쌀 등 수출증가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과 김치, 쌀가공식품 등이 수출증가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36억784만불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증가 품목은 라면(302.1백만불, 37.4% ↑), 김치(74.7, 44.3%), 쌀가공식품(61.5, 20.8%), 고추장(23.7, 27.3%) 등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액의 경우 채소류와 버섯류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 증가한 6억4720만불을 기록했다. 채소류는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파프리카·딸기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금액이 감소했다.

김치는 미국에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유자는 유아생강차 신제품이 미국 대형 할인매장에 입점해 대대국 수출이 93.8% 증가, 전체적으로 23.2% 증가한 2100만불을 기

록했다.

다만, 인삼류는 중국·일본에서 스틱형 제품 인기 등으로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지만, 대만·홍콩은 뿌리삼 바이어 입국 애로 등으로 수출액이 감소해 전체 수출액이 소폭 줄었다.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9억6064만불을 기록했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라면·쌀가공식품·과자류·소스류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외식업 침체 영향으로 식당에서 주로 소비되는 맥주, 소주, 음료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연초 부진했던 중국 수출이 회복됐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대 농식품 수출대상국인 일본은 라면과 김치 수출 증가에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체 소비가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김중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유통 여건 악화 속에서도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민간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비대면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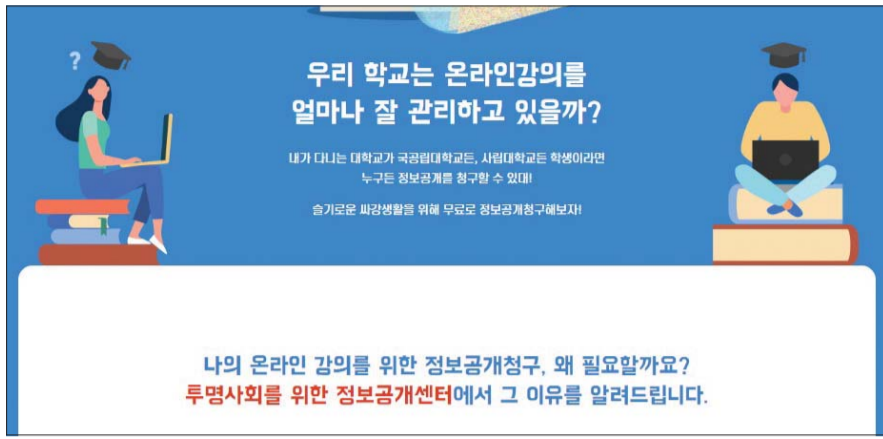
# 대학 정보공개청구 나선 학생들 “등록금 사용내역 알아야”

대학 소요비용에 대한 의구심 전제 사용내용 받지 못해 정보접근 불가 “대학, 관리 의무 하고 있는지 파악”

정부가 등록금 반환 자구책을 마련한 대학에는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를 둘러싼 학생들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이 재정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침묵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과거 수만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이뤄지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나섰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식이다. /‘화난사람들’ 캡처

대학을 상대로 이길지는 미지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해 교육기본법에 정한 각 대학의 의무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알리고 있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식이다.

‘화난사람들’이 가장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곳은 한림대다. 한림대에 정

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신고 건수가 지난달 29일부터 100건을 넘어서 박재천 변호사가 한림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 밖에도 호서대, 백석대, 강남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북대, 한림대 등 13개 대학에서 각 100명 이상이 신고해 대학 측에 정보공개청구 진행한 상태다.

박재천 변호사는 “만약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이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나타난다면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1일 대학생들이 발표한 집단소송을 뜻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주축으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집단소송에는 운동본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2개 대학의 학생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은 대학이 그간 반환 불가 이유로 주장해온 ‘방역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전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서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이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방역, 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축 등에는 대학 당 2억여원에서 8억여원이 사용됐다.

일부 대학이 올해 재정 악화 요인 중 하나로 꼽아왔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인 감소세도 예상보다는 적었다. 대교협이 집계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대학생 수는 4월 30일 기준 전국 138만 9735명으로 지난해 141만 6867명에 비해 1.9% 감소했다. 올 1학기 전국 대학 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평균 5억 6800만원 가량이 줄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학으로부터 사용 내역을 전달받지 못해 제대로 된 정보접근이 불가하다”며 “정부에서는 1인당 40여만 원 반환을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서울공연예고 특목고 지정 취소

운영문제·반복적 감사, 주요 원인 청문절차 거쳐 최종지정 취소 결정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외부 행사에 학생들이 부적절하게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수목적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 소재 4개 예술계열 특목고 평가 결과, 서울공연예고만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26일 진행된 특목고 지정·운영 위원회에서는 서울공연예고의 반복적 감사 처분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

앞서 서울공연예고는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민원이 제기되며 2018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특정감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 선임 부적절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부적절 집행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일부 의혹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서울공연예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와는 다르게 청문 이후 교육부의 동의 절차는 없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최성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서울공연예고가 일방적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재학생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순천향대 문종석 교수팀, ‘우수 논문상’ 수상

대한당뇨병학회 우수논문 선정 항비만 효과 약물 지방산 유도 주제

순천향대는 지난 1일 문종석 순천향 의생명연구원 교수와 조승일 대학원생이 대한당뇨병학회가 선정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논문에서 문종석 교수는 교신지자로, 조승일 대학원생은 제1저자로 ‘항비만 효과 약물 PF-04620110에 의한 지방산 유도 NLRP3 염증복합체 활성화 억제 기능 확인’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문종석 교수는 연구를 통해 ‘항비만



문종석 교수

조승일 석사과정생

효과를 가진 PF-04620110 억제제와 이비만 관련 지방산 유도 NLRP3 염증복합체에 의한 대사염증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퇴직 후에도 학교 사랑... 김명신 선생, 1억 기부

고려대 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식 37년간 고려대서 직원으로 근무

고려대에 37년간 근속한 퇴직 직원이 코로나 극복과 의학 발전을 위해 학교 측에 1억을 기부했다.

2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에 1억을 기부한 김명신 선생(54년생)은 1974년부터 2011년 퇴직할 때까지 37년간 고려대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기부자 뜻에 따라 5000만원은 ‘KUP RIDE CLUB’의 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 위기 극복 장학금으로 쓰이고, 5000만원은 고려대의료원 의학발전기금으

로 쓰일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 고려대 본관에서 김명신 선생과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 기부식에는 김명신 선생과 정진택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송혁기 대외협력처장, 김신곤 기금사업본부장, 백나실 부장이 참석했다.

기부식에서 김명신 선생은 “요즘 같은 때 고려대에 기부하면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아픈 아이들 소아 의료 쪽도 지원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하게 쓰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이동희 교수

창업교육협의회 회장 취임

국민대 이동희 경영학부 교수(사진)가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제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7월까지 2년이다.



한국창업교육협의회(이하 KAEE)는 교육부 산하의 국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및 비 LINC+ 대학 창업교육센터와 창업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최대 창업 교육 협의체이다. /이현진 기자

## 방사청 “방위산업 주요 통계 분기별 공개”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빠르게 변화되는 방위산업 관련 통계 정보가 앞으로는 더 빠르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부는 방산육성정책 등에 이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일 “방위산업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등 5대 주요 통계를 매분기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연도별 주요 통계도 이듬해 6월까지 추정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는 방산업체 88개(’20. 6월 기준)를 조사대상으로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인원 ▲가동률 ▲영업이익 등의 항목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다.

그간 방산업체 통계는 매년 연도별로 조사됐다. 방사청의 ‘방위산업 실태조

사’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 연도 다음 해 말 또는 2년 뒤 첫분기 때 책자 발간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정책수요에 비하여 제공되는 시점이 늦어 방위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부족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방위산업 통계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과 함께 불분명한 출처나 잘못된 방위산업 통계자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를 방사청 홈페이지에 분기·연도별로 공개함으로써 방위산업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THINKWARE

아이나비

#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 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손인국 회장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취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이구산업 손인국 회장이 제5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손인국 회장은 과거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으로 역임하며 중소기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지금은 안산비철금속유동사업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기사랑나눔재단

### 대상그룹, 헌혈캠페인 '레드 챌린지' 진행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이벤트 마련

대상그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부족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 '대상그룹 2020 레드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7월 한 달간 대상주식회사,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초록마을, 대상에프앤비 등 전 그룹사가 함께 참여한다.

올해 대상그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적정 혈액 보유량 5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자 '2020 레드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상그룹은 헌혈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반인



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캠페인 기간 개인 SNS에 해시태그(#대상 #청정원 #레드챌린지 #덕분에 #헌혈 등)와 헌혈 인증 사진 또는 헌혈증을 게시하고, 7월 6일부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서 응모하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에 참여한 일반인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200명에게는 청정원, 증가집 제품으로 구성된 푸드박스를, 100명에게는 대상웰라이프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BBQ, 코로나로 침체된 대학배구 후원  
제너시스 비비큐가 후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배구 후원자로 나섰다. BBQ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진행 및 후원 축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배구를 후원하기 위해 한국대학배구연맹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오른쪽)과 한국대학배구연맹 오승재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BQ

### 인사

-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전보 △기금관리단장 박태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소통실장 최덕근
- ◆신한카드 ◇신규선임 △글로벌사업본부장 정순영 △영업지원팀장 김정일 △대구고객센터장 황상훈 △MyCredit사업추진단 파트장 조부연 ◇이동 △MyData사업추진단 셀장 우상수
- ◆오렌지라이프 ◇부사장 임명 △증권운용팀장 김성수
- ◆교보생명 ◇FP지원단장 △강남 전상혁 △서초 손정달 △광교중앙 황선중 △부산중앙 장한수 △수성 장성철 ◇GFP사업단장 △서

- 울중앙 윤형민 △서해 조병제 △서울 양승일 ◇팀장 △시장확대추진(다원서비스센터장 겸임) 정기환 △법무지원 이한문 △연금자산운영 박승호 ◇센터장 △컨설팅트분지원 김재욱
- ◆서울시교육청 ◇승진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임찬식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양주 △마포 평생학습관장 김원식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강현선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화부장 이종오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김낙용 △학생교육원 재정지원과장 박영성 △교육시설관리본부 총무부장 강성만 △서대문도서관장 임미화 △중로도서관장 윤수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협력관 고경춘 ◇전보 △양천도서관장 강영숙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임동환

-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최웅장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정미경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박정신 △동대문도서관장 오세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유재학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창근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승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영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고영갑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동훈
- ◆대한석탄공사 ◇1급 △기획조정실장 김동환 △안전생산실장 권태중 △감사실장 박성남 △화순광업소장 김기범 △연구소장 신재민 ◇2급 △혁신기획팀장 홍광욱 △예산팀장 송경철 △경영평가팀장 석근우 △경영정보팀장 정

- 상희 △비상보안팀장 남연원 △경영관리팀장 최광진 △재무관리팀장 최용숙 △상생협력팀장 박종철 △생산개발팀장 박기창 △감사실 청렴추진팀장 안장현 △장성광업소 기획부장 이주복 △장성광업소 수광부장 배주석 △장성광업소 철암생산부장 김학수 △장성광업소 중앙생산부장 송영배 △도계광업소 기획부장 이석태 △도계광업소 동덕생산부장 정봉현 △화순광업소 부소장 오대현 △화순광업소 기획부장 손성원 △연구소 남북협력팀장 정구동
- ◆시사오늘 △경제부 정책산업팀장 방글

- 사)씨 장인상 = 2일 오전 4시 30분, 인천 송림동 청기와장례식장 301호, 발인 4일 오전 8시, 010-5331-3816
- ▲ 동수환 씨 별세, 정성홍(정성홍법률사무소 대표)·박노준(안양대학교 총장) 씨 장모상 = 2일, 이화여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2-2650-2741.
- ▲ 오중안 씨 별세, 정성록(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총경) 씨 장인상 = 1일 낮 12시 30분, 목포효사랑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3일 오전 8시, 061-242-7000
- ▲ 최병기씨 별세, 최동일(신곡경희한의의원 원장)·최남일씨 부친상 = 1일, 안양성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20분, 031-467-9770

## 주름제거술



홍중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그 사람의 나이를 가늠케 하는 노안의 상징 '표정주름'은 깊고 많을수록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주로 눈가와 입가를 비롯해 미간, 이마, 팔자주름(비구순 주름) 등이 대표적인 표정주름으로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평소 관리방법이나 생활환경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주름 유형을 살펴보면 얼굴 중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눈가의 경우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고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아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주름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눈가주름을 예방하려면 평소 눈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인성 주름과 같이 주름이 깊은 편이 아니라면 보톡스 시술로 눈가주름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이마주름은 선천적으로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안검하수) 이마근

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처진 눈꺼풀로 인해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는 경우 더 깊어질 확률이 높다. 중년남성의 경우 이마주름이 중후한 매력을 풍기기도 하지만, 주름이 깊게 패거나 주름이 많을수록 노안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화난 인상을 풍길 수 있으니 보톡스 시술이나 이마거상술을 통해 이마주름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반면 코 옆에서 입가로 이어져 이른바 '고양이주름'이라고도 불리는 '팔자주름(비구순주름)'은 심하지 않다면 필러나 자가지방이식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팔자주름이 깊은 경우에는 시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귀족성형과 같은 보형물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노화로 인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아래로 처졌거나 팔자주름과 눈가주름 때문에 노안으로 보인다면 '안면거상술'로 이 두 가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일명 '페이스리프팅'이라고도 불리는 안면거상술은 눈가 및 팔자 주름, 처진 피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동안효과'가 있어 중장년층 사이에서 노안 콤플렉스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개 부위와 박리 범위로 헤어라인을 따라 V자로 피부를 절개한 뒤 귀 앞부분의 침샘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까지만 박리해야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일명 '까치발주름'이라 불리는 안륜근을 제거하면 영구적으로 눈가주름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의사의 숙련도가 부족하면 눈초리와 입꼬리가 찢어져 보이거나 갈퀴, 심한 흉터, 안면비대칭, 안면신경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주름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술 전 생리, 감기, 몸살, 고열 등의 증세가 있다면 수술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가 자주 바뀌거나 수술 비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한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 이마트24, 장기 실종아동찾기 힘 보탠다

매장내 디지털 사이니지에 경찰청과 손잡고 정보 노출

이마트24가 경찰청과 손잡고 장기 실종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에 힘을 모은다.

매년 국내 아동실종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만5230건에서 2018년에는 2만 1980건으로 44.3% 증가했다.

이마트24는 경찰청과 함께 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이끌어 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 2일 밝혔다.

이에 이마트24는 7월부터 4800여개 전 점포의 계산대 모니터를 통해 실종아동의 사진과 정보를 노출시켜, 매장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마트24는 매장 내 설치되어



이마트24 매장에서 고객이 디지털사이니지를 통해 실종아동의 정보를 보고 있다 /이마트24

있는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756점) 도 실종 아동 찾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3개의 대형화면으로 구성된 디지털 사이니지에는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35명의 실종아동 사진(실종당시의 사진, 현재 모습을 예측한 몽타주)과 인적사항, 가족들이 직접 남긴 메시지 등이 영상이 송출된다.

실종아동의 예측몽타주는 AI를 활용해, 실종 당시 아이의 모습과 부모사

진, 현재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종아동의 현재 모습을 예측했다.

30초 분량의 실종 아동에 대한 영상은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중 하나로 송출되며, 하루 120회 이상 노출된다.

디지털사이니지는 매장 고객체류 시간이 가장 높은 카운터 상단에 위치해 있어, 고객들에게 실종아동찾기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부음

- ▲ 정대규씨 별세, 공성택(기호일보 상무이



## CU, 100개 점포서 '24시간 배달서비스'

23~24시 배달수요 가장 높아

CU가 전국 50여 곳에서 운영하던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100개 점포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CU는 지난 3월 서비스 운영 시간을 기존(11~23시)보다 2배 늘린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전국 50개 점포에서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약 3개월의 테스트를 거친 결과, 24시간 배달 서비스에 대한 고객 니즈와 가맹점의 매출 상승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서비스 도입 점포수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CU에 따르면, 24시간 배달 서비스 운영점의 일 평균 배달 매출은 12시간 배달 서비스 운영점 대비 무려 6.9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를 시간 당 매출로 환산해보면 한 시간 동안 발생하는 배달 매출이 12시간 배달 서비스 운영점의 3.4배에 달했다.

특히, 24시간 배달 서비스 운영점의 경우 하루 배달 매출의 절반(44%)이



CU 24시간 배달 100호점 돌파. /BGF리테일

23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가장 배달 수요가 높은 시간 역시 23시부터 24시까지로 나타나 심야 배달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심야 시간대(23~3시) 배달 인기 품목으로는 야식에 곁들여 마실 탄산음료와 꼬치, 조각치킨 등 즉석조리식품이 꼽혔으며, 최근 안주 컨셉트의 상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도시락이 그 뒤를 이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더클럽 배송기사가 모델과 함께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수박 냉장 배송 서비스 '쿨-럽배송'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 “수박, 냉장배송으로 시원하게 드세요”

홈플러스 '쿨-럽 배송' 실시

홈플러스는 오는 8월 15일까지 대형마트와 참고형할인매장의 장점을 결합한 홈플러스 스페셜의 온라인몰 '홈플러스 더클럽'에서 수박 냉장배송 서비스 '쿨-럽 배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마트에서는 수박을 상온 진열한 상태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해왔으며, 온라인 주문 고객들에게도 상온 상태 그대로 배송해왔는데, 여름철 배송반자마자 그대로 잘라 먹어도 시원한 상태로 즐길 수 있도록 아예 냉장 보관한 상태의 수박을 배송하는 것이다.

홈플러스 더클럽의 '쿨-럽배송'은

점포 보관 단계에서부터 아예 별도의 온라인 전용 냉장고에 수박을 보관해 고객 주문 즉시 배송트럭 냉장실에 옮겨 담아 고객 집 앞까지 배송된다.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은 배송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고객 집 현관문 앞까지 가져가는 짧은 시간뿐이다.

산지에서 공급받은 수박을 대부분 1~2일 내에 모두 판매해야 하는 대형마트의 특성에 따라 저온장하나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하면서도, 고객들은 신선한 수박을 마치 냉장고에서 막 꺼낸 듯한 상태로 바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냉장배송은홈플러스만이 갖추고 있는 특별한 물류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했다. /신원선 기자

## 10시간 저온숙성 '햄스빌 굿베이컨' 출시

CJ제일제당, 참나무훈연 풍미 살려

CJ제일제당이 기존 베이컨 제품 대비 두툼하게 썰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햄스빌 두툼한 굿베이컨(사진)'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돼지고기를 10시간 이상 저온 숙성한 후 참나무로 훈연해 베이컨의 풍미와 씹는 맛을 그대로 살리고, 살코기 부위를 사용해 느끼함과



조리 시 기름이 튀는 현상을 줄였다. 또한 6mm로 썰어 집에서 근사한 메인요리로, 캠핑 시 바비큐용으로 활용도가 더욱 다양해졌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

## 동행세일 기간 상품 최대 50% 할인

# 롯데마트, 노마진 수준 '통큰절'

러시아 대게 2980원 판매 등 내일부터 이틀간 '통큰절' 행사

롯데마트가 동행세일 기간을 맞아 '노 마진' 수준으로 통크게 쏜다.

롯데마트는 오는 4일과 5일 인기 상품들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는 '통큰절'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에서 준비한 동행세일 1,2탄의 할인율을 업그레이드 한 행사로, 노 마진 수준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대형마트의 입장에서 노 마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가격적인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고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이에 롯데마트는 행사 기간 동안 인기 신선식품은 물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노 마진 수준



2일 서울 중구 봉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직원이 통큰절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인기 상품들을 '노 마진' 수준으로 선보이는 '통큰절'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으로 선보인다.

우선, 동행세일 2탄에 3300원에 선보인 '러시아 대게(100g·러시아산)'를 통큰절 기간 동안 약 10% 추가 할인한 2980원에 판매한다. 1등급 한우도 준비해 '1등급 한우 불고기·국거리(각100g·냉장)'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 기존 판매가에서 40% 할인된 3420원에 선보

인다.

전 점 한정으로 바나나 1+1행사도 준비해, '바나나(1봉·필리핀산)'를 3980원에 판매하며 '페루산 아보카도(1개·페루산)'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 기존 판매가에서 50% 할인한 990원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백 잠실점, 루이비통매장 리뉴얼 오픈

의류 입점... 여성라인 전상품 전개 시즌 신상품 폰네포 핸드백 등 마련

롯데백화점은 전날 잠실점 에비뉴엘 1층에 '루이 비통(LOUIS VUITTON)' 여성 전문 매장을 새 단장해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잠실점 4층에 루이 비통 남성 전문 매장을 별도로 선보이며 시작된 루이 비통 여성 전문 매장 공사는 총 6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리뉴얼은 기존 핸드백, 지갑, 구두 등 잡화 상품으로만 구성됐던 루이 비통 여성 매장에 의류(RTW: Ready To Wear) 상품을 입점시켜 루이 비통 여성 라인 전 상품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루이 비통 여성 매장은 잠실점 에비뉴엘 1층에 유일하게 의류 라인이 없던 브랜드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잠실점 에비뉴엘 1층 전 브랜드에서 명품 의류 라인을 선보이게 됐다.

또한, 루이 비통 여성 전문 매장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의류 상품 외에도 이번 시즌 신상품인 폰 네포(Pont 9)



잠실점 에비뉴엘 루이 비통 여성 전문 매장. /롯데백화점

핸드백을 만나볼 수 있으며, 매장 내 팝인(Pop-in/브랜드 매장 내부에 따로 공간을 꾸며 특별한 라인의 상품을 선보이는 것)을 통해 루이 비통의 전통과 혁신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위치와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명품 잡화 뿐만 아니라 명품 의류에도 관심이 많은 MZ세대(밀레니얼 세대 +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에 주목해, 잠실점 에비뉴엘에 지난해부터 구찌 여성 전문 매장, 톰 브라운 여성, 3.1 필립프, 디스퀘어드2 등을 오픈하며 잠실점 에비뉴

엘에 명품 의류 브랜드를 지속 보강 중이다.

롯데백화점이 잠실점이 명품 의류 브랜드 입점 및 리뉴얼을 지속 진행하며 해외명품 상품군에 힘을 주는 이유는 롯데백화점에서 명품 매장 규모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점포이기 때문이다. 잠실점은 전국 롯데백화점 중에서 매출 규모 2위 대형 매장으로 2020년 1~6월 기준 전체 매출 구성비 중 무려 37% 이상이 해외명품 매출로 2019년 구성비 30%였던데에 대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신원선 기자

## 日 불매운동에 인력감축 나선 아사히

계약직 연장 안하고 희망퇴직 접수

'노노재팬' 운동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일본 맥주 '아사히'가 인력 감축에 나섰다.

'아사히'를 유통하는 롯데아사히주류는 지난해 12월 근로계약이 끝난 계약직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에 이어 최근에는 희망 퇴직을 신청받았다.

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최근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희망퇴직자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력 감축은 없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 약 한 달간 재택근무를 시행한 것 말고는 무급 휴직 등 직원들 근무 형태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인사전략이

나 국내 판매 전략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국산 맥주와도 당당히 어깨를 견주던 일본의 대표 맥주 브랜드 '아사히'는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매출도 5% 대로 급감하면서 이 같은 생존 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아사히는 2018년 4분기만 해도 458억84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수입·국산을 통틀어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원은미 기자





# 성심병원, 코로나 환자 폐이식 국내 첫 성공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세계 9번째 입원 다음날부터 112일 에크모 치료 중증환자 위한 에크모 핫라인 가동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폐이식을 국내 최초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세계에서는 9번째다.

2일 병원측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환자는 지난 2월 코로나19 중증환자로 긴급 후송돼 응급중환자실 음압격리실로 입원했다. 전원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산소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산소농도가 88% 이하로 떨어지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병원은 초기 치료로 항말라리아약인 클로로퀸과 에이즈 환자에서 사용하는 칼레트라를 사용했고, 항염증작용을 위해 스테로이드도 사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비교적 젊고 건강한 환자였지만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를 시행해 환자의 폐 기능을 대신해야 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폐이식을 국내 최초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에크모팀은 다음 날인 3월 1일 환자에게 에크모를 장착하고 선제적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폐 상태는 나빠졌다. 흉부X-ray 검사 결과에서는 심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흉부CT 검사 결과 양측 폐에 광범위한 침윤소견과 폐섬유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폐 기능이 너무 심하게 손상돼 에크모를 떼는 순간 환자는 사망 위험이 높았다. 선택은 폐 이식 밖에 없었고 의료진은 폐이식을

결정했다. 환자는 입원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이식하기 전날인 6월 20일까지 무려 112일 동안 에크모 치료를 시행했다. 112일 코로나19환자 중 에크모 장착은 세계 최장기간 기록이다.

폐이식은 지난 20일 8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진이 장기간 에크모 장착으로 인한 감염, 출혈, 혈전증 등 여러 합병증을 잘 막고 환자의 식이요법

과 체력저하 등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집중치료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에크모센터장 흥부외과 김형수 교수는 “코로나19 환자 중 국내에서 최고의 중증치료 사례”라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를 떼어낼 때 건강한 폐와 다르게 크기도 작게 수축 되었고 마치 돌덩이처럼 폐가 딱딱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현재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자발호흡을 하고 있으며 앉아서 스스로 식사를 하고, 호흡근운동과 사이클을 통한 침상 재활운동을 시행해 하지 근력을 키워 걸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경호 병원장은 “이번 폐이식 성공은 우리나라 중증환자 치료가 세계적 수준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에크모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 에크모 장비를 보유하고, 중증심폐부전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에크모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맥도날드 쿼터파운더 치즈 디럭스

## 맥도날드 '쿼터파운더 치즈 디럭스'

맥도날드는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표 버거 '쿼터파운더 치즈'에 신선한 채소를 더해 더욱 풍성해진 신제품 '쿼터파운더 치즈 디럭스'를 2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양상추, 상큼한 토마토, 소고기 패티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양파 등 신선한 채소가 푸짐하게 더해졌다. 또 버거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그 맛을 인정받은 메뉴이기도 하다. /조효정 기자

##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피부고민 솔루션 3단계

아모레퍼시픽의 연구소 기반 고성능 브랜드 아이오페가 '스킨 퓨처 시리즈'를 2일 출시했다. 이번에 내놓은 신제품은 '리프팅'과 '리제너라이징'이라는 두 가지 테마의 세트이다. 아이오페 '스킨 퓨처 시리즈-리프팅 세트'는 결혼식 등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자신감 있는 피부를 준비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 필링 소프트 젤'과 '바이오 에센스 인텐시브 컨디셔닝', '더비타민 C23'의 3가지 제품으로 구성했다. /조효정 기자

## 골수종치료제, 코로나에 효과

보령제약 '아플리딘' 항바이러스 확인 '렘데시비르'보다 최대 2800배 낮은 농도 바이러스 선택적 사멸하는 능력 우수

보령제약이 스페인 파마마와 독점판매 계약한 아플리딘이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 시험에서 '렘데시비르'에 비해 최대 약 2800배 낮은 농도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보령제약의 의뢰로 국내 공신력 높은 연구기관에서 반복 수행한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연구에 따르면, 아플리딘은 원숭이 신장 세포 실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 승인된 대조약물 '렘데시비르' 대비 2400~2800배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으며, 사람 폐세포에서는 '렘데시비르' 대비 80배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

또한, 바이러스를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보령제약이 파마마와 독점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아플리딘은 아플리디움 알비칸스라는 해양천연물에서 기원한 성분으로서, 적응증은 재발하거나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제다.

아플리딘은 현재 호주에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시판 중인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3상 임상 승인을 받아 수백명의 환자에게 투약되는 등 인체 내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이다. /이세경 기자

## 'NK엑소좀' 피부섬유아세포 증식효과 확인



화장료 조성물 특허 출원

GC녹십자웰빙이 NK세포배양액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아토피 등 피부면역질환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NK세포배양액에서 유래된 '엑소좀'의 피부세포 증식 효과와 관련한 화장료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명은 'NK세포배양액 유래 엑소좀을 함유하는 피부질환 개선, 예방, 치료용 화장료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이다. 엑소좀은 생체분자들을 주변 세포에 전달하는 물질로 나노입자 크기의 작은 '세포소포체'이다. NK세포 유래 엑소좀은 인체에서 유래된 물질인만큼 안전하고 세포 투과율이 높

아 화장품 소재로서 높은 효능이 기대된다.

이번 특허는 NK세포배양액으로부터 농축된 엑소좀에서 확인된 특이적인 바이오마커와 NK세포배양액 유래 엑소좀 성분의 피부섬유아세포 증식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NK세포배양액은 화장품 원료 선택에 기준이 되는 ICID(국제화장품자료집)에 등재된 원료로, 피부섬유아세포 및 표피를 이루는 '케라티노사이트'의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을 70종 이상 함유하고 있다.

회사측은 NK세포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피부 면역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NK세포배양액 유래 엑소좀은 최근 대기 중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영향은 물론 아토피와 같은 피부면역관련 질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 펫콕족 증가에 반려동물용품 매출 '덩실'

휘슬, 5월까지 매출 전년비 17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펫콕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용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애경산업의 프리미엄 펫 케어 브랜드 '휘슬'은 올해 1~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6% 성장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중요성이 전보다 커지며 관련 제품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반

려동물의 피부 및 위생적인 털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샴푸, 미스트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했는데 휘슬에서 출시한 '반려동물 전용 샴푸 및 미스트'는 올해 1~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성장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또한 휘슬의 반려 동물 위생용품인 '리얼블랙배변패드'와 '리얼블랙샌드'는 각각 188%, 86% 성장했다. 휘슬 리얼블랙배변패드는 숯 성분을 담아 배변 악취를 줄여주고 검은색 패드로 디자인돼 반려견의 소변 자국이 보이지 않으며, 리얼블랙샌드는 응고력이 좋은 벤토나이트로 만들어진 보호자가 치우기 용이해 인기를 얻고 있다.

## 종합영양제 '텐텐', 엄마들 입소문 타고 '인기'

한미약품, 코엔자임 Q10 함유

한미약품의 어린이 종합영양제 텐텐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관심을 받고 있다. 텐텐은 비타민(A, B1, B2, B6, C, D, E)과 칼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하게 항산화 성분인 코엔자임 Q10을 함유해 성장기 체내 에너지 생산 촉진 작용으로 성장발육에 도움을 준다. 또 자일리톨이 첨가돼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기존 텐텐에 홍삼 성분을 더한 텐텐G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렸다. 텐텐G에 함유된 홍삼의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텐텐은 어린이뿐 아니라 전 연령대가 육체피로 시, 수유기, 노년기, 병중·병후 체력 저하시에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텐텐은 만 36개월 이상부터 만 8세 미만의 경우 하루 2번, 1회 1정씩, 만 8세 이상의 경우 하루 2번, 1회 2정씩 복용하면 된다. 텐텐은 추정 타입으로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간편하게 복용이 복용이 간편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세경 기자

## 블랙야크키즈 동행세일 '자사몰 기획전'

블랙야크키즈가 자사몰 기획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 부진을 타개하고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기획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블랙야크키즈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야외 활동은 놓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 상황(TPO)에 따라 착용할 수 있는 상하의 세트 제품들을 선보인다. 기존 의단독 상·하의 제품을 세트로 구성한 특가 제품이며, 단품으로 구매하더라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조효정 기자



블랙야크키즈 20SS 화보



# 효성, '자매결연' 광개토부대 10년째 후원

### 4400만원 상당 위문금·위문품 지원

효성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효성은 1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달한 위문금과 위문품은 4400만원 상당이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육군 장병들의 체력 단련과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10년 수도권 북방과 서부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매년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과 장병들을 위한 독서 카페시설 등을 후원해왔다.

한편, 효성은 지난 22일 100여 명의 중증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에넌복지재단에



효성이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효성 이정원 전무(왼쪽)와 육군 제1군단장 황대일 중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시설개선지원금 2000만원을 지원했다. 효성의 후원금은 쓰레기봉투 생산에 필요한 인쇄기, 복열기 등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

고, 장애인 직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롯데정밀화학 '유록스' 광고 1000만뷰 돌파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브랜드 '유록스(EUROX)' 영상 광고가 온라인에서 한 달 만에 1000만뷰를 돌파하면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최근 치어리더 박기량, 안지현과 함께 새로운 광고를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광고는 지난달 1일부터 유튜브와 네이버TV,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시청자들로부터 한 달 가까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시청자들은

맛글을 통해 '1일 1유록스', '수능 금지곡', '광고인 줄 알면서 일부터 들어와서 다본 건 처음' 등 긍정적인 반응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3년 연속 광고 모델로 발탁된 치어리더 박기량과 이번에 새로 합류한 치어리더 안지현에 대한 반응도 호의적이어서 광고 모델 선정 역시 호평을 받고 있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중독성 강한 CM 송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출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 같다"며 "광고 모델인 박기량 씨



유록스 영상 광고 장면 속 광고모델 치어리더 박기량(왼쪽)과 안지현. /롯데정밀화학

와 안지현 씨의 시너지 덕분에 유록스 프리미엄 3.5L 신제품의 실용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결국 소비자에게 남는 것은



### 기자 수첩

조효정  
(유통&라이프부)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

식품업계에 몰아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가 크다. 연일 줄어드는 매출에 기업은 고정 및 가변 비용을 감축하기에 정신이 없다. 가장 쉬운 비용절감 방식은 뭘까. 흔히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인건비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받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사유로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맥도날드 알바노조는 한국맥도날드 측에 매장 인력 총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한국맥도날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근무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근로자의 업무량이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근무 조정 등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스타벅스 블라인드 계산판에는 "매장 파트너로 근무하는 한 직원이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후 점장에 의해 해당 고객에 사과해야 했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측은 이에 대해 관계사 측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고 있다. 각 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를 접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에 관련해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결국 인기 있는 캠핑용 의자도, 맛있는 과자도, 할인 행사도 아니다. 바로 '기업의 갑질 이미지'가 남는다. 그리고 이는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다.

앞서 1위를 차지하던 유제품 기업은 반복되는 노사갈등 및 갑질 이슈가 원인이 돼 불매운동의 여파를 맞은 바 있다.

당장의 비용절감을 위해, 또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결국 기업의 미래를 감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뿐이 아닌 '진짜' 동료(crew)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princess@

오늘의 운세 7월 3일 (음 5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48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 **6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2년생**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84년생** 아무리 바빠도 우편물은 꼭 살펴라.
- 37년생** 때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 **49년생**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6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7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8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
- 38년생**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50년생**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자. **62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7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86년생** 여의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 39년생** 흉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51년생**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자. **63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75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87년생** 이기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가라.
- 40년생** 오늘은 나만을 위해 지출을 해보자. **52년생** 동분서주 바쁘지만 하고 싶은 없다. **64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7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 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 41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 **5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 **65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77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른 법. **89년생** 추적으로 기분을 달랠다.

- 42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많다. **54년생**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 **66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78년생** 종로에서 뽕뽕하고 한강 가서 분풀이. **90년생** 행복은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
- 43년생** 자식으로 인해 빚내서 빚을 갚는다. **55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내면 된다. **67년생**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79년생** 외출할 때 이론차를 조심. **9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면 길이 보인다.
- 44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56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68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80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92년생**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 45년생** 자식이 많으니 근심도 많다. **57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69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걱정이야. **8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93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 4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8년생**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 **70년생** 처음이 중요하다 끝맺음도 잘 해야 한다. **8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94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 47년생**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59년생** 제3자로 해서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71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83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온다. **95년생** 붉은색, 숫자 6이 행운을 준다.



# 김상희의四季

### 일상의 감사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소소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 즉 '소확행'에 대한 인식은 복잡한 현대문명 속에서 정신을 쉬고 재충전하는 일종의 비타민 같은 것이었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강제적 격리와 거리 두기는 그리고 질병 전염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개개인의 동선 감지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현실로 맞부딪혔음을 공인하게 됐다.

가족끼리도 포옹할 수 없고 손을 잡기도 조심스럽다. 필자의 한 지인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운동 중 부상으로 인해 수술 했는데 미국 방문 후 한국의 자가 격리 규정으로 인해 바로 달려 가질 못했다. 어렵사리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미국행을 했지만 아들의 첫 마디는 삼 일간은 포옹은 고사하고 손잡는 것도 안 된다며 후시 열이 나는 것은 아닌 지도 잘 체크하라는 소리였다며 서운해 했다. 미국도 여전히 환자 증가관계로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기에 그러마 했고, 고국에 돌아와서는 재택근무를 전제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가 회사로 돌아갔다. 미국에 다녀온 게 찜찜한 지 검사결과가 음성이며 무증상임에도 직원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무엇보다 마음의 거리까지 멀게 한 것이 코로나인 것이다. 백신이 나온다 해도 앞으로는 여러 감염질환이 몇 년을 주기로 발병할 것이 대세일 듯한데, 서로가 서로를 불신의 눈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더욱 답답했던 것은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부에서 식사도 할 수 없었다.

소확행은 커녕 일상의 움직임까지도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으니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실제로 아직 전조증상을 겪고 있을 뿐이 다라는데 경제와 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8	C	6	B	2	
7	9	3		1			4	8
	C	5	2	4			A	1
		B		8			A	9
6	A		5	4				7
2		C		1			8	
		8		7		C		2
2				B	3		5	4
	A	1		5			9	
C	2				9	8	3	B
8	1			2			6	4
4	B		6	A		2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4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3호



# 유명인 방문도 거절한 와이너리



안상미 기자  
Why, wine

## (77) 美 컬트와인 스크리밍 이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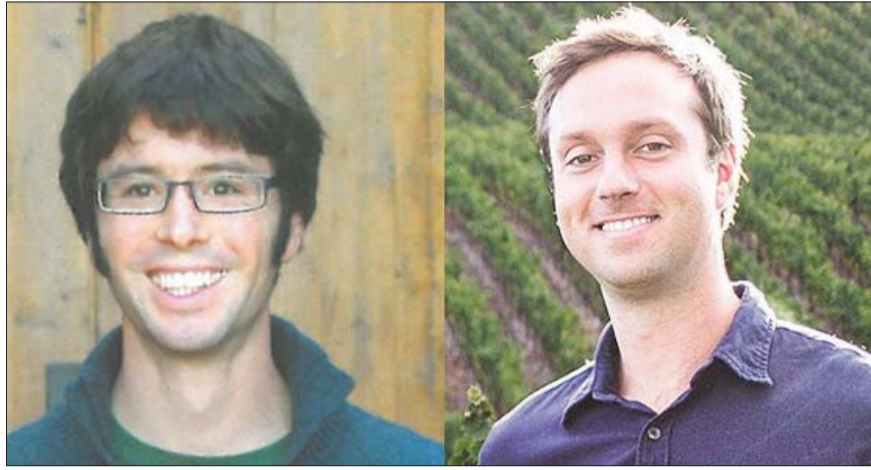
콧대 높은 와이너리가 있다. 스웨덴 왕가가 방문한다고 해도, 팝스타 비욘세가 한 번 와보고 싶다고 해도 거절한다. 유명인이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와인메이커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 최고의 컬트와인으로 손꼽히는 스크리밍 이글. 그저 고급진 미국 레드나 화이트 와인에 머물지 않고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맛을 선사하는 호나타와 더 힐트가 그렇게 탄생했다. 소유주는 모두 동일인인 스탠 크론키(Stan Kroenke)다.

스탠 크론키는 미국 최고의 스포츠 재벌 중 한 명으로 억 만 장자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간판 구단 중 하나인 아스날 FC와 미국 NFL의 로스 앤젤레스 램즈, 미국 NBA의 덴버 너기츠, 미국 MLS의 콜로라도 래피즈 등을 소유하거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좋은 선수가 시작이자 끝인 스포츠 구단의 소유주답게 스탠 크론키는 와인업계에 뛰어들면서도 사람에게 집중했다. 그의 진가는 이미 기량이 증명되고 유명한 선수를 어떻게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는 데서 빛을 발했다.

스크리밍 이글의 1대 와인메이커는 하이디 배럿, 2대 와인메이커는 앤디 에릭슨. 스크리밍 이글의 명성과 스탠



(왼쪽부터)스크리밍 이글 와인메이커 닉 기스레이슨(Nick Gislason), 호나타·더힐트 와인메이커 매트 디즈(Matt Dees). /나라셀라

일을 구축한 이들이 나간 이후 3대 와인메이커는 바로 당시 스크리밍 이글 양조장에서 합류한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당시 29살의 신예 닉 기스레이슨이었다. 특급 와이너리에서 경력이 있거나 이미 이름이 높은 세계 최고의 와인메이커들이 추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스탠 크론키는 닉 기스레이슨을 선택했다. 2대 와인메이커 앤디 에릭슨과 와이너리 운영책임자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 파격적 인사였다. 닉 기스레이슨은 포도밭에서 일하던 중에 잠시 사무실로 들어와 보라는 호출을 받았다가 얼떨결에 와인메이커가 됐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수줍어 했지만 포도밭 관리와 와인양조에서는 천재적이라는 점을 알아본 셈이다.

모험적인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호나타는 이미 나파밸리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스크리밍 이글과 달리 와인을 만든 적이 없던 곳을 사서 포도를 심었다. 당시 이 곳에 어떤 품종을 심으면 될 지 프랑스 보르도 5대 샤토의 양조장을 포함한 세계적 인물들을 데려와

컨설팅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흑평이었다. 모래가 많고 너무 서늘해 와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 아스파라거스나 심으라는 대답도 나왔다.

반면 호나타의 와인메이커로 채용된 젊은 와인메이커 매트 디즈의 의견은 달랐다. 토양과학자 출신의 매트 디즈는 누구보다 테루아를 잘 이해했고, 호나타에 맞는 새로운 성공방식을 찾는데 성공했다.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산타 바바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스타가 탄생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신생 와이너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매트 디즈는 호나타에 이어 2008년에 설립된 더 힐트의 와인메이커이기도 하다. 더 힐트 역시 와인을 만들어본 적이 없는 척박한 땅을 사서 포도밭을 조성했다. 샤토네이와 피노누아, 단두 품종만을 재배하고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 시몬스, 전국 매장서 최대 20% 할인 이벤트

구매 금액대에 따라 사은품 지급



시몬스 침대 프레임 신제품 모나.

시몬스는 예비·신혼 부부를 위해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제품을 최대 20% 싸게 파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라지킹', '킹오브킹' 사이즈 구매 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 프리미엄 매트리스에 한해 5~10% 추가 할인을 적용해 최대 2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침대 프레임 및 룬세트, 퍼니처, 베딩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프레임과 룬세트 신제품은 10%의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20% 싸게 판다.

시몬스 침대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구매 금액대에 따라 풍성한 사은품을 지급한다. 300만원 이상 구매 시 40만원 상당의 케노샤 호텔 침구세트를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하고, 500만원 이상 구매 시 케노샤 호텔 침구세트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케노샤 거위털 이불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준다.

/김승호 기자 bada@

# 웰스, '생활 맞춤 솔루션' 신규 브랜드 TV광고



웰스의 TV 광고 화면.

웰스(Wells)는 '생활 맞춤 솔루션'을 소개하는 브랜드 TV광고를 새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총 2편으로 구성된 이번 광고는 웰스 생활 맞춤 솔루션을 타이틀로 1일부터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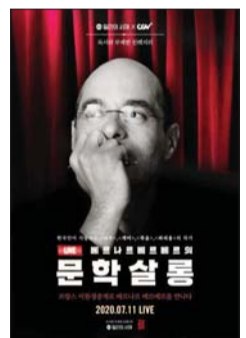
웰스 브랜드 광고 1편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신규 브랜드 로고를 활용해 웰스 제품을 이용하는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았다. 남녀노소 모델들이 각자 생활 속에서 웰스 정수기, 공기청정기, 웰스팜 등 제품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달 중순 공개 예정인 브랜드 광고 2편은 웰스 생활 맞춤 솔루션을 보다 직관적인 영상으로 전달한다. 천편일률적인 맞춤이 아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개인의 생활에 맞춰 함께 변화하는 웰스 솔루션만의 특별함을 소개한다.

/김승호 기자

#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라이브 북토크 개최

밀리의 서재 문학살롱 라이브 프랑스 현지서 이원 생중계



토크에 참여할 수 있다.

밀리의 서재가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의 북토크를 연다.

밀리의 서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문학살롱 라이브'를 오는 11일 오후 5시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밀리의 서재와 CGV가 주관하고 출판사 열린책들과 협업한 이번 북토크는 프랑스 현지에서 이원 생중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뤄진다.

밀리의 서재 회원이라면 누구나 밀리의 서재 앱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북

토크에 참여할 수 있다. 밀리의 서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대표작 '나무', '개미', '죽음', '파피용'을 릴레이 방식으로 오픈한 이후 이들 도서가 '밀리 종합 베스트' 순위에도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북토크를 통해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1일 삼성동 야나두 본사에서 열린 양 사 업무 제휴식에서 야나두 이정훈 부대표와 AWS 김종찬 상무(왼쪽)가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야나두

## 야나두-AWS, 기술협약

# 이달말 학습관리 플랫폼 론칭

AWS 제공 클라우드 기술 활용 인증·보상 등 게임적 요소 가미

카카오에듀테크 계열사(㈜야나두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동기 부여 플랫폼을 선보인다.

야나두는 AWS 상에서 운영하는 동기 부여 플랫폼 '유캔두'를 7월 말 출시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유캔두는 야나두가 수강생의 중도 포기율을 낮추고자 '인증'과 '보상'이라는 게임적 요소를

가미한 비대면 학습관리 및 제품판매 플랫폼이다.

야나두는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보안은 물론 빠른 앱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일상 생활에도 비대면 문화가 요구되면서 야나두는 AWS 사용을 점차 확대해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공영쇼핑

# 공영심의위원회 신설

공영쇼핑이 생방송, 온라인으로까지 심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자체 독립기구를 본격 출범했다.

공영쇼핑은 지난 1일자로 상설 독립기구인 '공영심의위원회'를 신설·출범하고 심의 범위 확대와 심의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영심의위원회는 박진상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원장을, 사업별 본부장들이위원을 각각 맡고 기존 방송심의팀 8명이 포함된 사무국 등 총 17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방송 사전심의 중심에서 생방송(라이브), 온라인 심의까지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원회 주요 역할은 공영쇼핑의 방송을 포함한 온라인 몰, 모바일 앱 등의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엄정한 심의 기준 및 규정 위반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공영 심의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영쇼핑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홈쇼핑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인력을 대상으로 방송심의 경진대회, 전문 외부위원 초청 심의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워크데이, 새로운 증강 분석 앱 출시

기업 인력 관련 위험·기회 파악

워크데이가 '워크데이 피플 애널리틱스'를 출시한다.

워크데이 피플 애널리틱스는 새로운 증강 분석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업 인력과 관련된 최대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내 인사팀과 경영진은 인력 운

용에 관해 보다 빠르고 좋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포춘 50대 기업 중 65% 이상을 차지하는 워크데이 고객들은 워크데이 피플 애널리틱스를 워크데이 인적자본관리(HCM)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서윤 기자



### 국내최초

## 김삿갓 팔도유람 골프와관광

#### ▶전라도 목포 / 영암 사우스링스cc 골프관광

- 국내 최초 2인 Play, 노캐디
- 페어웨이 차로 진입 (6/22, 29, 7/6, 13 버스 출발)

7월 여름휴가 선착순 예약중

- 2박3일 35만원, 3박4일 47만원, 4박5일 59만원 (그린피, 카트, 호텔, 조식포함)



왕복버스 제공

#### ▶제주도 골프

- 제주라헨느골프 3일 399,000
- 타미우스골프 3일 440,000
- 포함 : 항공, 그린피, 숙박
- 에코랜드 3일 430,000
- 제주2인play골프
- 포함 : 항공, 숙박, 그린피, 노캐디

#### ▶여수경도CC 2박3일

- 2박3일 599,000원
- 포함 : 그린피, 조식, 숙박

#### ▶속리산 보은골프장

- 2박3일 400,000원
- 포함 : 그린피, 조식

#### ▶영덕 오션비치CC

- 2박3일 390,000원
- 포함 : 그린피, 숙박, 조식

#### ▶해발 600m 장수골프장 특가

- 1박2일 175,000원 / 2박3일 270,000원
- 3박4일 365,000원 / 4박5일 460,000원
- 포함 : 그린피, 조식, 숙박



덕유산cc 전경

## 바다골프 리조트 힐링 여름휴가 예약중

★ 동해안 영덕 오션비치골프 1박2일 223,000원

#### ▶2박3일 골프

웰리힐리 459,000원 (월~금)	강진 다산배아체 350,000원	문경 360,000원
알프스대영 587,000원	영광 385,000원	영덕 390,000원
용평 549,000원(월~금)	션밸리 414,000원	보은 속리산 400,000원
고창 325,000원	강릉 메이플비치 263,000원	포함 : 그린피, 조식, 숙박
보성 305,000원	파인리즈 285,000원	
석정힐 320,000원	여수경도 599,000원	

### IL Tour 02)541-4242

아이엘투어

24시간상담

홈페이지 : <http://www.iltour.co.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golfcondo>  
 카카오톡아이디 : golfcondo

## 코로나 19, 변화된 문화 사우나는 집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인 요즘, 기본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마스크 착용과 자주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면역력이 높다면 바이러스가 몸에 닿더라도 옮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적외선 사우나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면역력을 다질 수 있다. 원적외선은 인체 속의 분자운동을 일으켜 세포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피부 표면까지 열을 나게 도와줌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게 한다. 따뜻한 원적외선은 온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어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실외활동 후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실내 사우나를 하고, 입고 있던 옷을 잠시 실내 사우나에 걸어두는 것 만으로도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 건식 사우나 리치하우징 실내 사우나는 이러한 원적외선 웰빙 사우나로 노폐물이 쌓여 있을 때 사우나를 통해 노폐물을 내보내고, 세포의 재생을 도와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리치하우징 실내 사우나는 현재 북유럽으로 수출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리치하우징 실내 사우나는 1~2인용 250만원, 3~4인용 350만원, 5~6인용 550만원 (VAT, 운반 설치비 별도)에 판매중이다.

문의전화 1544-6299



1-2인용

### 북유럽 핀란드 수출용 국내산 사우나

#### 원적외선 사우나

- 캐나다산 적삼목
- 원적외선효과
- 자동온도조절
- 인체공학적인설계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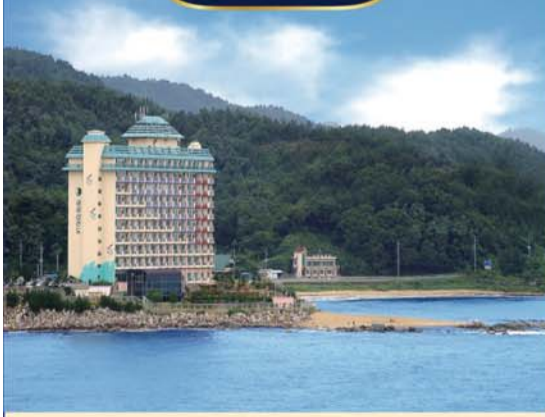
농약, 캠핑 하우스

24시간 상담 가능

## 리치하우징문의: 1544-6299

## 화진포 금강산리조트 99만원

여름휴가 예약 접수중



1. 전국 7체인 사용 (설악, 고성, 제주, 지리산, 서해안, 나주, 도교)
2. 사용기간 : 10년
3. 무료숙박권 20매(주중 10, 주말 10), 사우나 10매
4. 패밀리링 99만원, 스위트형 198만원
5. 숙박권 소진시 추가로 회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541-0113

## (특가)이천전원주택지

※원형지 분할가능 330-990m<sup>2</sup>



목화전원마을에서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어서리에 전원주택타운을 조성하여 분양을 마치고 회사보유분 전원주택지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선착순 2필지 분양하고 있다.

회사 보유분 2필지는 230m<sup>2</sup>를 3200만원, 318m<sup>2</sup> 4500만원에 분양중으로 토지를 분양 받은 후 언제든지 대지로 전환하여서 건축을 할수 있으며, 분양필지는 나대지로 텃밭으로 사용가능하고 농막하우스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세컨드 하우스로도 활용 가능하다.

대지 230m<sup>2</sup>에 이동식 주택 18m<sup>2</sup>를 설치하여 4,600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전원단지 백족산(402m)아래 남서향으로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며, 주변에 장호원 시내, 5일장터가 5분 거리에 있고 현재 공사중인 분당에서 장호원 감곡 중주선이 개통되면 전철역 10분 이내의 역세권이 될 예정이다. 현재 승용차로 성남 장호원 간 전용도로 개통으로 서울 강남까지 40분에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문의 010-2069-4353

신청금 100만원 농협 355-0042-8685-43 오연철(목화디엔씨)

주인직접 문의 010-2069-4353



## 캠핑카의 대세 세미캠핑카 탄생!

평일 업무용, 주말에는 캠핑카로 변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프라이빗한 캠핑카로 제2의 삶을 누리볼까

코로나19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뜻한 봄날 꽃잔치 등 활발하게 여행의 적기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모든 모임 활동 자체가 취소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게 캠핑장과 캠핑카여행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캠핑카의 종류가 무수히 많이 있지만 코로나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소비자의 소비 흐름이 실속있는 지출로 변화되면서 캠핑카 시장도 세미캠핑카 시대를 맞고 있다. 평상시에는 업무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면서 주말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 우리 가족만의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위하여 세미캠핑카를 활용하여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미캠핑카는 스타렉스 5인승 밴을 개조하여 제작한 차량으로 5인 탑승하여 차박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캠핑카로 우리나라 지형에 아주 적합한 캠핑카라 할 수 있다.

문의 1566-1296



캠핑장, 낚시터 어디든 OK! 아파트 지하주차 가능

전국 대리점 상담

## 1566-1296



# 광주시, 코로나19 비상... 병상마련 총력

옛새간 확진자 45명 급속 발생  
총병상 64개 중 가용병상 17개  
전남·전북·대구 등에 지원요청

광주에서 최근 옛새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요청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발생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78명이며 이 중 32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46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옛새 만에 기존 확진자 수를 뛰어



2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입원 환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내원객들이 입구에서 발열 체크 등을 받은 뒤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넘을 정도로 확산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병상 포화상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병상은 64개가 확보돼 있으며 전남대병원 7명, 조선대병원 5명, 빛고을전남대병원 35명(타시

도 1명 포함)이 입원해 있어 가용병상은 17개 뿐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전남, 전북과 병상 확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개 구청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간호 인력 전면 재배치를 요청했다.

광주의 확산세가 심상치않자 이날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의 병상 200개가 남아있다고 광주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광주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병상연대를 제안해 대구지역 확진자들이 광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시장은 "권영진 시장의 병상 제공 제안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우선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남과 전북의 병상을 이용하고 필요할 경우 대구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식.

## AI 실무인재 본격 양성 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

광주시, 현판식·교장임명식 등  
코로나19 우려... 간소하게 진행

광주광역시와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를 개교하고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2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용섭 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문인 북구청장,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기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당초 이날 개교식은 모든 교육생이 참여해 오리엔테이션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따라 교육생은 참여하지 않고 현판식과 교장 임명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교육생 오리엔테이션도 전날 온라인으로 사전에 진행했다. 또, 시교육청에서 전날 2일부터 3일까지 각급 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인공지능사관학교도 이 같은 시교육청 방침을 기준으로 삼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일찍이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추고 있다.

교육은 서울에서 참신한 코딩교육으로 명성을 쌓아온 '멋쟁이사자처럼(대표 이두희)'이 주관한다. 교육생들은 매일 8시간 교육을 받고 11월까지 5개월 동안 8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선발시험에 앞서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4주간 멋쟁이사자처럼이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코드라이언)을 통해 기본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정규수업 후에는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연구실 박사과정 출신들이 공동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엘리스'를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엘리스는 SK그룹, LG그룹, 서울대, 카이스트 등 50여 곳의 주요 대기업과 대학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8월까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중·고급 과정을 320시간 이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특화산업과 공공 분야를 주제로 480시간 동안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 110년 역사 낙동김 신제품 개발 '청신호'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연구협약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립수산물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와 낙동강하구에서 생산되는 '낙동김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립수산물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신제품을 개발하고 보존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김은 1910년대부터 가덕도와 사하구 사이에 위치한 어장에서 양식을 시작해 110년의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다. 부경대 영남씨그랜드센터의 '낙동김 고도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김은 어장 내에

용존 무기질과 인이 많아 해조류 성장에 최적의 어장환경을 가지고 있다. 큰 지역에 비해 조단백, 당근, 아연, 타우린, 총페놀화합물, 엽록소a가 높게 함유돼 성분과 색채, 부드러움이 뛰어나다. 낙동김을 생산하는 부산지역은 쿠로시오 난류 영향권에 있어 국내 김 양식어장 중 해수면 수온이 제일 높아 온난화를 대비해 고수온 내성을 가진 김 종자 개발과 시험 양식을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강효근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신제품 개발과 보존이 실현된다면 낙동김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 김산업의 지속성장 발전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의원 기자 bsmorning@

## 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올인

올 650호 2년내 1000호 지정 목표

전라남도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까지 388호를 지정했으며, 올해 650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인 가축 사양관리를 비롯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 조화 등 축산환경이 우수한 농장을 말한다.

지정을 희망한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할 경우, 시군의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다. 지정은 5년간 유효하다.

특히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현대화사업, 약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정책사업에 우선



장성 든해솔농장 /전남도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오는 2022년까지 1천호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축산농가는 환경 개선으로 경관, 약취 등을 잘 관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수능 기자 ysn6313@

## 동네방네

### 안동시, 시트지원사업 접수 한옥체험·호스텔업 등 대상

안동시는 오는 10일까지 '한옥체험업 등 시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2년 차 사업으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에는 대상 범위와 예산액을 확대해 더 많은 사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는 사업체로써 안동시에 등록된 한옥체험업, 관광호텔업, 호스텔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등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상주 복숭아, 동남아 수출 이번주 1.5t 싱가포르 行

경북 상주 복숭아가 올해 첫 동남아 수출 길에 올랐다. 2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 복숭아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목)은 올해 재배된 복숭아 수출 선적식을 했다.

이번주까지 동남아로 수출되는 복숭아는 1.5t으로 싱가포르 한국 농식품 전문 업체에서 판매된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복숭아 160t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해 8억원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 “주민세재산분 신고하세요” 예천군, 31일까지 신고접수

예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 1㎡당 250원의 세율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위탁사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경북교육청, 원격수업 분석 정책·지원현황 웨비나 개최

경북교육청은 오는 6일 지금까지의 원격수업을 되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수업 방안을 탐색하는 '경북형 원격수업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북형 원격수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웨비나는 경북교육청의 원격수업 정책과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내실 있는 원격수업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 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 '쓱'... 언택트가 만든 미래 서울

### 서울지하철 1~8호선 2022년부터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 시범운영 감염병 예방 중점 둔 국공립어린이집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개찰구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100% 비접촉식 게이트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2022년부터 만나볼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가 시범 운영되고 감염병 예방에 중점을 둔 공간 디자인 솔루션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대중교통, 돌봄, 의료와 같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서 혁신 표준모델을 발굴해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포스트 코로나 공공혁신 대시민 보고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2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공공혁신 대시민 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회'를 열고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4차산업 기술을 도시 운영에 접목,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언택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

래도시 서울 조성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실시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민생 방역 ▲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 ▲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뼈대로 하는 5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향후 3년간 128개 사업에 6116억원을 투

입한다.

우선시는 기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시작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전동차 선로의 고장 징후를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트레인 안전관리를 2022년 전 노선에 도입한다. 이듬해에는 전동차별 혼잡도를 앱이나 승강장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시는 시민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공공서비스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를 가져다 달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을 켜고 개찰구를 지나가면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접촉식 게이트'를 2022년까지 지하철 1~8호선 556개 개찰구에 설치한다. 2023년까지 3340개 모든 게이트에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비대면 신용보

증 프로세스도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대출 희망자가 금융기관을 한 차례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보증서류와 대출서류를 내면 재단과 은행이 각각 보증심사와 약정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방역에도 나선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창업(상권분석, 예비창업 컨설팅) → 성장(경영 개선 교육, 시설 보수 지원) → 재도전(업종 전환 교육, 원상 복구 비용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의 성장 면역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청년 일자리를 연간 300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창업 225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층 일자리 700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2017년 서울 지역총생산 404조... 전국의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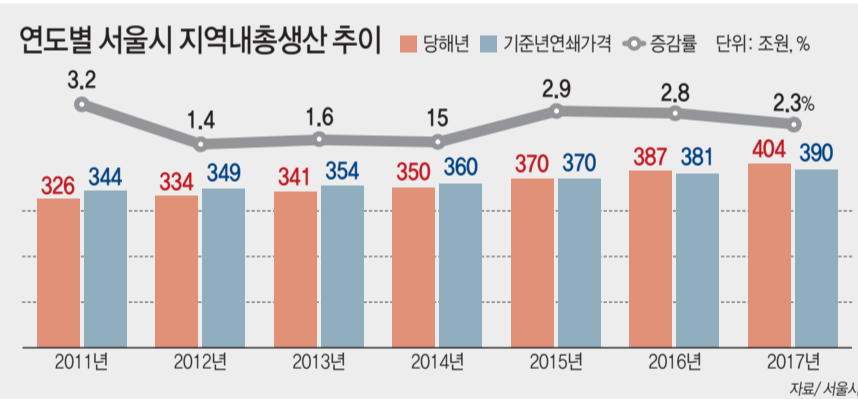
### 서울시민 1인당 GRDP 4133만원 강남구, 구별 GRDP 규모 가장 커 전년 대비 성장률, 강서구 1위

서울에서 2017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404조800억원으로, 전국의 2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민 1인당 GRDP는 4133만원으로 전국 3583만원보다 550만원 많았고, 전년 대비 201만원 증가했다.

서울의 GRDP는 도·소매업 16.4%, 사업서비스업 15.7%, 정보통신업 12.8% 등 서비스업이 91.7%를 기록했고 제조업 4.4%, 건설업 3.4%로 집계됐다. 2016년과 비교하면 정보통신업(4.5%), 부동산업(4.1%)이 성장했고



제조업(-4.3%), 공공행정(-2.5%)은 후퇴했다.

구별 GRDP 규모는 강남구가 65조 387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중구 51조 2130억원, 서초구 33조 7720억원, 영등포구 32조 5500억원, 종로구 31조 4160억원, 송파구 26조 8160억원, 마포구 18조 7400억원, 강서구 16조 7720억원, 금천구 16조 3850억원 순이었다.

강북구는 3조 570억원으로 가장 작았다. 강남구는 강북구의 21.4배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강서구가 44.3%로 1위였다. 반면 중구는 -4.8%로 최저였다. 강서구와 중구는 각각 기업 입주 및 이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별 1인당 GRDP 규모는 중구가 4억 612만원으로 압도적으로 컸고, 종로구(1억 9623만원), 강남구(1억 2420만원), 서초구(8117만원), 영등포구(8106만 9000원), 금천구(6556만 5000원)가 뒤를 이었다. 은평구는 965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김현정 기자

## 김포시, 강소기업 육성·전략산업 선도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이사장 정하영)이 공식 출범했다.

김포산업진흥원은 김포 중소·벤처기업의 종합 지원과 체계적 육성, 전략산업 선도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선7기 김포시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정책기획, 기업육성 등 2팀 5명의 최소 인력으로 출발하지만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

터가 건립되면 이전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가운데)은 지난 1일 열린 출범식에서 "혁신성장 위해 고심하고 있는 김포 기업들의 오랜 소원을 풀어드리게 돼 정말 기쁜 마음"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과 비전 제시로 강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끊임없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김포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고양시 청년·신혼부부 사회주택 지원

고양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사업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7월 말 운영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고양시관리공사를 통한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서울시, 준공·입주 2023년 2월 예정

서울시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4세대가 공급된다고 2일 밝혔다.

착공은 올해 8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12월, 준공과 입주는 2023년 2월로 예정됐다. 공공임대가 74세대, 민간임대가 190세대다.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내대지에 총

연면적 1만 2835.588㎡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21층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을 세대마다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상 3층에는 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지상 1층은 공공보행통로로, 지상 2층은 은평구 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마을활력소로 각각 조성된다. /김현정 기자

## 세운상가 장인 제품에 뉴트로를 더했다

서울시는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로 시제품이 제작된 카세트테이프 모양 MP3 플레이어 등 6개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2일 밝혔다.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는 세운상가군 일대 도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비비티의 '카세트MP3'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제품으로, 터치센서 콘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로사드스튜디오의 '달마시안 선반'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제품으로 달마시안 패턴이 적용됐다.

아몬드스튜디오의 '전통잔 술라'는 전통주, 막걸리 시장에 선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금속 술잔이다. 40여년 경력의 시보리 장인과 아몬드스튜디오가 금형제작, 시보리가공, 프레스가공, 후가공까지 제품 제작 전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협업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3일 (금)

음력 : 5월 13일

수도권 날씨

30 ~ 2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05:15 | 해질 19:57

연천 19/29

동두천 19/30

가평 19/29

파주 19/29

서울 21/30

양평 20/29

인천 21/28

수원 21/29

용인 21/29

평택 20/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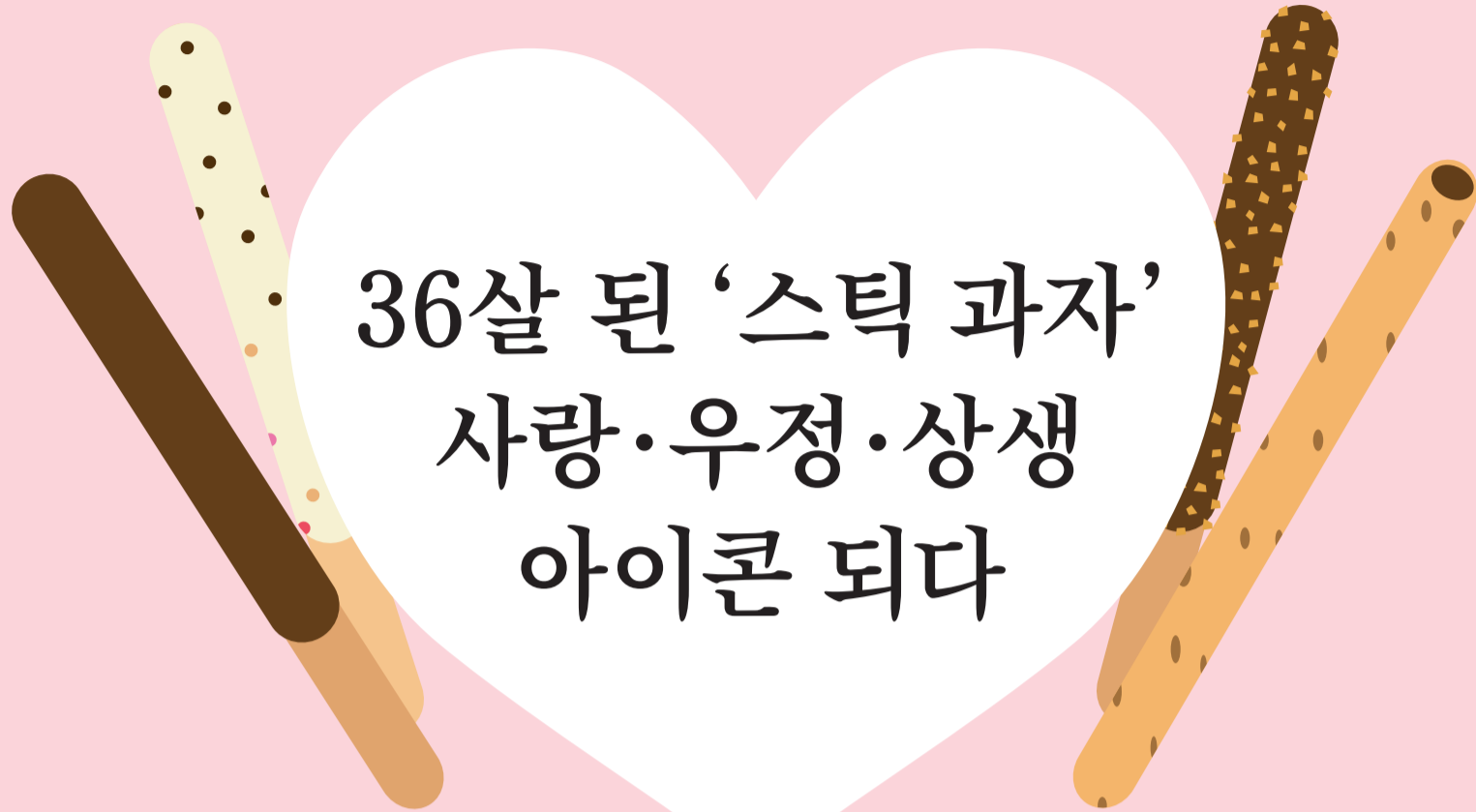


[산업] 삼성전자 '뉴 셰프 컬렉션' 공개 08



Life

[라이프] 롯데마트 노마진 수준 '통큰절' 11



# 36살 된 '스틱 과자' 사랑·우정·상생 아이콘 되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롯데제과 '빼빼로'

37년간 사랑과 우정의 아이콘으로서 사랑 받은 과자가 있다. 바로 롯데제과의 빼빼로다.

빼빼로데이의 모티브가 된 스틱과자 빼빼로는 지난 1983년 4월에 탄생했다. 올해로 만 36세를 맞았다. 빼빼로는 가늘고 긴 스틱과자 위에 초콜릿을 발랐다. 고소한 맛과 달콤한 맛이 잘 조화를 이뤄 출시 초기부터 주목받았다. 형태가 독특해 똑똑 끊어먹는 재미도 있다.

빼빼로는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상징'으로 포지셔닝되면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거뒀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아침 떠오르는 켈로그의 시리얼, 한국인의 정(情)과 제품을 동일시시킨 오리온 초코파이, 가족들과 일요일에 먹는 식품이라는 오투기 카레와 농심 짜파게티처럼 빼빼로는 11월 11일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제품이 됐다.

1996년 시작한 빼빼로데이가 특히 제품의 폭발적 인기로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인 포지셔닝으로 빼빼로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장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빼빼로는 1983년 4월에 출시된 이후 37년 동안 매출액 총 1조7000억여 원을 기록했다. 출시 초기부터 인기몰이했던 빼빼로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판매량이 더 올라갔다. 빼빼로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시작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4년간 거둔 빼빼로 매출액은 1조4000억 원 이상이다. 오리지널 초코 빼빼로로 환산하면 약 30억 갑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약 60갑씩 먹을 수 있는 양이다.

#### ◆미국 교과서에도 실린 '우정의 날'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는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전 국민에게 '우정의 날'이자 빼빼로를 선물하는 이벤트 데이로 통한다. 2010년에는 미국의 초등학교 참고서에 언급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할로윈데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대부분 기념일이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빼빼로데이는 순수 토종 기념일이어서 의미가 크다. 그것도 지방의 학생들에 의해 순수하게 만들어진 날이다. 빼빼로데이의 탄생은 대략 1996년 정도



롯데제과 빼빼로.



2012년 미국 MIT 공대 학생들이 펼친 빼빼로데이 행사. 스위트홈 충남태안.



/롯데제과

가늘고 긴 스틱과자 위에 초콜릿 발라 맛·독특한 식감 출시 초기부터 주목

빼빼로데이 상징으로 폭발적인 인기 iF어워드 수상·美 참고서에 실리기도

초코·아몬드·누드 등 다양한 라인업 빼빼로 사회공헌으로 상생 이미지 더해

로 추정된다. 이 시기 경남의 한 여자 중학교 학생들이 11월 11일 빼빼로를 주고받으며 "날선해지자"는 응원과 바람이 지역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확산하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제과업체인 글리코사는 1999년 빼빼로 데이를 모방해 '포키&프리치의 날'을 만들었다.

2012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학생들이 빼빼로 데이 행사를 캠퍼스에서 펼쳤다. 같은 해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가 빼빼로를 정식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중국에서도 빼빼로 데이가

퍼지고 있다고 롯데제과는 전했다.

국내에서 사랑과 우정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빼빼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각종 상을 받고 있다. 빼빼로 디자인이 지난 2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어워드를 수상했다. 롯데제과의 빼빼로 캐릭터를 활용한 기획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이달 초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사가 선정하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롯데제과는 2018년부터 디자인 담당 부서를 디자인 센터로 승격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등 디자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5년 연속 국제 디자인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2014년 이래 6년간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횟수만 13차례다. 이 기간 제과 기업 중에서는 최다 수상 기업이다.

####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다양한 라인업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현재 인기에도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빼빼로 종류는 초코빼빼로, 아몬드빼빼

로, 누드초코빼빼로 등 오리지널 제품을 비롯해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선보이는 기획제품 등 총 20여 종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아몬드빼빼로, 초코빼빼로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 4월 신제품 '크런키 빼빼로'를 출시했다. 크런키 빼빼로는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제품이다. 크런키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도 있다. 롯데제과는 정식 출시 전 '크런키 빼빼로'의 시험 판매 당시 하루 7000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덴마크, 영국, 독일 등 3종의 유럽산 크림치즈가 들어간 빼빼로 누드 크림치즈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롯데제과가 지난 2년간 개발한 인공지능(AI) 트렌드 분석 시스템 '엘시아'를 통해 나왔다. 롯데제과는 엘시아의 분석 결과 빼빼로에 치즈를 접목하는 것이 최적의 조합으로 나와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 ◆사랑과 우정을 넘어 나눔의 아이콘으로

최근들어 빼빼로의 아이콘이 나눔과 상생, 어울림으로 정착되고 있다. 사랑과 우정의 컨셉으로 시작됐지만,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나눔과 함께하는 인식이 깊어진 것이다.

빼빼로 판매 수익금으로 설립되는 '스위트홈' 벌써 8년째이다. 또한 특정한 때 이루어지던 빼빼로 과자 지원도 연중 쉬지 않고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로 인해 빼빼로는 사랑과 우정이라는 컨셉으로 시작됐지만, 사회공헌활동이 여기에 나눔, 상생, 어울림 등 새로운 인식이 더해지고 있다.

빼빼로 수익금으로 이루어지는 '스위트홈'은 지역아동센터로서 매년 1개 센터가 설립된다. 2013년 전북 완주 1호점을 시작으로 경북 예천, 강원 영월, 충남 홍성, 전남 영광, 경북 봉화, 충남 태안으로 이어졌다. 올해 설립되는 '스위트홈' 8호점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세워질 예정이다.

'롯데제과 스위트홈'은 놀이공간과 학습공간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놀 수 있도록 세워진다. 이 프로젝트는 롯데제과와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일로 뻘어 나갈 수 있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